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5호 【루계 제25268호】 주체105(2016)년 5월 4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캄보쟈폰센뻬크당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르프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공산당《로씨아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아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쏘련공산당소속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몰도바공화국 공산주의자당 위원장,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말리를 위한 련합 위원장, 민주통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브라질맑스-레닌주의공산당 총비서, 페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페루근로자당 위원장, 자유루표동맹을 위한 페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우루과이혁명적공산당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에찔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로동자세계당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로씨아 21세기판현악단 단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로씨아, 중국, 네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슈, 캄보쟈, 파키스탄, 이란, 일본, 웰남, 벌가리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딸리아, 기네, 남아프리카, 꽁고, 민주꽁고,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로동당력사에서 뜻깊은 시변으로 될 당 제7차대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의 투쟁에 새로운 활력과 고무를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물리치며 승리만을 떨쳐온데 대하여 격찬하면서 그들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그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영웅적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여 정의의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끼르기즈스딴아알랍당 정치리사회와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과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메달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메달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벨라루씨공산당《충실성》메달이 4월 29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에게 전달되였다.

벨라루씨공산당 국제부장 안드레이 크라벨리니꼬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벨라루씨공산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과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실성》메달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것과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

로씨야에서 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이 로씨야 오제안스까야역에 모셔졌다.

현판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2002년 8월 23일 로씨야 원동지역방문시 오제안스까야역에 머무르시였다.》라는 글이 조문과 로문으로 씌여져있다.

현판제막식이 4월 28일 진행되였다.

제막식에는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로씨야 연해변강행정부, 울라지보스또크주재 로씨야외무성 대표부의 인사들과 군중 그리고 울라지보스또크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령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엄숙적인 박수속에 사적현판이 제막되였다.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오제안스까야역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을 모신것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를 여러차례 방문하시여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통일로씨야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관계가 보다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연해변강행정부 국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칭송하면서 이 친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이 3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를 찾은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의 개척자, 령도자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섰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의 굳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눈부신 성과들을 마련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였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혁명의 대성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 일념으로 가슴불태웠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한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이 3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우리 당을 백전백승에로 향도하시여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태양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의 개척자, 령도자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띠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탕건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충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영광의 5월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70일전투의 승전소식들이 련일 전해지는 속에 평안남도에서도 전투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도적으로 높이 세운 전투목표에 비해 전력은 1억 6천여만kWh, 석탄은 36만여t, 세멘트는 4만 9천여t이나 더 생산되는 놀라운 기적 창조…

평원농약공장, 평성시농기구공장, 회창군직물공장 등 10개의 단위들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안주철연물공장과 안주뽐프공장, 명산군식료공장, 덕천고려약공장, 녕원군건재공장 등 110개 단위들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도수산관리국, 도림업관리국, 도탐사관리국, 화학건설련합기업소, 화력건설련합기업소, 평성합성가죽공장, 순천구두공장, 봉학식료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70일전투목표를 점령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의 280여개 협동농장, 농장들에서도 70일전투목표를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70일전투 전기간 모든 단위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충폭발시키는 일대 사상전을 들이대며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장조에로 불러일으키였다.

영광의 대회, 승리의 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펏펏이 들어서기 위한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는 속에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충정의 70일전투의 첫아진군에서 비상한 애국열의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총폭발시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폭풍노도처럼 내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현일

남포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높이 세운 전투목표들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서해갑문사업소, 대동강전기공장에서 3월말까지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4월에 들어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남포항, 대안친선유리공장, 보산제철소, 대안전기공장, 강서한방, 금성뜨락토르공장, 남포수산사업소, 남포의료기구공장, 강서편직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전반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 70일전투목표와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서해갑문사업소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고 배수문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필요한 예비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배수문능력을 1.5배로 높임으로써 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로운 수지창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두달만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결속하고 시험생산에서 성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남포항, 대동강전기공장, 강서한방, 대안전기공장을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뚫고나가면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점령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이 세운 전투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드높이 당 제7차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펏펏이 들어설 열의에 넘쳐 계속 힘찬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충정의 70일전투의 첫아진군에서 비상한 애국열의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총폭발시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도안의 협동전아들마다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파기자 리혁철

함경북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투목표를 빛나게 점령한 기세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진격의 함성을 더 높이 울리고있다.

북방의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70일전투의 첫날에 6만t 말과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철정광생산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1, 2, 3호대형원추형파쇄기들과 선광부문의 설비들이 만가동, 만부하로 돌아가고 1 300m 폐석장거리벨트콘베아공사와 7 000여kWh, 1 635만여kWh의 전력을 증산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일최고생산수준이 돌파되여 혁혁한 전투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도안의 협동전아들마다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파기자 리혁철

함경북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투목표를 빛나게 점령한 기세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진격의 함성을 더 높이 울리고있다.

북방의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70일전투의 첫날에 6만t 말과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철정광생산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1, 2, 3호대형원추형파쇄기들과 선광부문의 설비들이 만가동, 만부하로 돌아가고 1 300m 폐석장거리벨트콘베아공사와 로천채굴장의 원격감시체계도입 등 철정광생산을 과학적으로, 전망적으로 늘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서두수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부문의 로동자들은 물관리를 과학화하고 발전기들의 보수정비를 짜고들어 70일전투에 이어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회령탄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중요대상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청진제강소에서는 70일전투기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구단광수직로를 일떠세우고 회전로들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진강재공장에서는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생산계획을 매일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연사림산사업소를 비롯한 도림업관리국아래 사업소들에서는 70일전투기간 매일 높이 세운 통나무와 통발나무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였다. 김책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전투기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지난 4월 25일 《황금해 08-9001》호의 진수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회령시와 경원군, 길주군, 온성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봄철영농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70일전투목표, 상반년, 년간계획 완수

평안북도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70일전투의 첫아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70일전투목표, 상반년,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 량책베아링공장, 수풍발전소, 태천발전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십개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근 200개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70일전투기간에 상반년,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다.

12월5일청년광산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지난 3월 21일까지 상반년계획을 102%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홍진도간석지건설장의 2호, 4호제방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4배이상 높아진 70일전투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하고 3호제방장석공사에 진입하여 매일 공사과제를 3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신의주광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매일 생산과제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고 상반년생산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의주선박공장에서도 앞선 배수리와 배무이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70일전투계획을 3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특파기자 송창윤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땅에 눈부신 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4월말까지 200여개 단위에서 년간, 상반년인민경제계획과 70일전투목표를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청년발전소, 안변청년2호발전소, 통천발전소, 통천탄광, 원산철도분국과 강원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매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여 상반년계획과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 군들의 기초식품생산단위와 회양군건재공장, 천내리세멘트공장, 옥평벽돌공장 등 건재생산을 맡은 단위의 근로자들도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년간계획과 상반년계획,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였다.

천내, 김화, 금강군을 비롯한 도의 지방공업공장들의 로동자들도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군의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원산구두공장, 문천식료공장, 원산유리병공장, 원산통조기공장, 강원도통신기계수리공장을 비롯한 도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년간, 상반년생산계획과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특파기자 신현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정 론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삼가 이 글을 드린다

조선의 좋은 봄, 로동당의 5월이다.

걸어온 천만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정히 드리고 웅대한 설계도로 눈부신 새시대의 려명을 떠올릴 우리 당 제7차대회, 주체혁명의 이 높은 분수령에 오르니 억세인 혈맥처럼 뻗어온 력사의 한줄기가 보인다.

혁명의 길!

지원의 새벽길로부터 오늘의 영광의 만리길에로 장장 두세기, 혁명의 세대도 몇번이나 대를 바꾸며 이어가는 이 길, 그것을 노래로 쓰면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되고 그것을 휘천우에 수놓으면 우리의 붉은기가 되며 그 승리의 리정표를 다 합치면 조선로동당의 모습이 빛발친다. 그 자욱자욱을 하나로 이으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한생이 숭엄히 어려오고 그 길에 우리 운명과 미래를 실으면 최후승리의 해돋이가 이 심장에 용암처럼 끓는다.

천리이는 5월의 당기아래 수백만 당원들, 천만의 충직한 아들딸들이 자신을 세우며 불덩이같은 가슴을 헤쳐 엄숙히 맹세한다.

눈부신 우리 태양 김정은동지 따라 주체의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혁명정신 대대손손 이어 태양의 이 조선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리라.

1

무엇이였는가. 정녕 우리는 누구였으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눈보라, 물바다길을 헤쳐왔던가. 이제 또 높은 산, 시련의 굽이굽이를 타고넘으며 얼마나 먼길을 가야 하랴. 마치도 이 세상의 가장 가혹한 고난만을 찾아간듯 희생의 더운 피, 그 아픔과 눈물은 얼마였고 달려드는 원쑤들은 왜 그리도 많았는가. 피할수 없는 운명인듯 모든 길이 전인미답의 초행길이고 매 세대가 생눈길에 나서야 했던 이 길, 그러나 기어이 오고야마는 양춘의 힘과도 같이 첫걸음도 천리길도 승리였고 적과의 대결전에서는 물론 창조와 건설에서도 이겼으며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있다. 보통의 인간, 어느 인민이면 아무리 가고싶어도 엄두조차 낼수 없는 이 길을 우리 인민은 왜 운명의 숨줄처럼 붙안고 웃으며 가는가. 무엇으로 하여 백전백승은 조선이 가는 길을 위해, 조선의 혁명가들과 영웅적인민을 위해 세상에 나온듯 영원한 우리의 언어로 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혁명의 길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엄숙한 두개의 대답만을 주고있다. 고난을 맞받아 헤고나가는 강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었고 그앞에 뒤걸음질치고 에돌 길을 찾는 인간에게는 치욕과 패배를 주었다. 승리와 패배, 영광과 치욕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있고 하늘땅차이와 같은 두 세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한순간, 한걸음에 의해 좌우된다. 앞으로 내디딘 한걸음과 뒤로 주춤한 한순간이 이런 두 운명을 빚어낸다.

시련은 승리로 들어가는 문일뿐이고 투쟁의 간고성은 곧 승리의 거대함을 보여줄 뿐이다. 풍랑을 가르며 대양을 누비는 배가 밀려오는 파도를 이겨내자면 그 파도를 맞받아 타고넘어야 전진할수 있고 그것을 피하거나 물러서면 침몰을 면치 못하듯이 혁명은 풍랑을 헤쳐가는 력사의 전투함이라고 말할수 있다.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이 조선의 양춘을 부른 남산의 푸른 소나무, 그 력사의 새벽길에 이어 《ㄷ, ㄷ》의 붉은기와 두자루의 권총으로 문을 연 조선혁명이였다. 이 운명의 닻을 올리는데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을 3대각오라는 너무도 값비싼 피가 바쳐졌다. 날짐승도 들어서기 저어하는 천험의 숲속에 한치한치 길을 내며 포연과 피로 얼룩진 붉은기를 머리우에 굳게 잡고 넘어넘어 침침준령이고 가도가도 끝이 없던 빨찌산의 길이였다.

빼앗긴 조선이 아니라 다 죽었던 조선이였다. 그렇게 40여년이나 력사의 무덤속으로 빠져들던 이 나라를 다시 안아 거기에 생명의 숨결을 부어주고 동방에 높이 세워 일으키는 이 길, 세계대전의 참화가 온 대륙을 파괴치고 지구도 불타며 들던 재난의 세기에서 크지 않은 한 나라의 멸망정도는 세상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던 때였다.

앞에는 일제의 총칼이 백만의 숲을 이루고 참기 어려운 굶주림에 벅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백두의 혹한과 아득한 밀림과 눈덮인 평야가 있었다. 뒤에는 끊어진 5,000년의 혈통이 허구한 세월 울분의 피를 다 쏟으며 실날같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신음하는 인민들은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며 조선의 땅을 애타게 갈망하고있었다.

길은 땅으로 걸어가는 발자욱이였는가, 땅에 쏟은 피의 흐름이였는가. 실로 한걸음, 한걸음의 전진은 산야에 길을 내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숨결을 잇는것이고 그 한치한치 뻗어간 피줄기를 따라 조선이라는 새 생명과 주체혁명이라는 대업이 태줄을 내리고 고고성을 울리며 푸르싱싱 성장해갔다.

걸어온 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천금같은 회고의 교시가 우리 세대의 가슴을 끓이고있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나는 그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떠한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

길, 우리 수령님의 길!

다시 외워보면 한찰나의 헛갈림에 혁명도 조국도 줄지에 무너질수 있는 그런 생사결단의 선택들과 걸어온 천리길도 아차하는 지체함에 다시 령으로 되돌아갈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길목들이 련이어 겹쳐들었다. 마침내 해방의 8월이 오자 그뒤에는 싸움보다 더 힘겨운 전국의 초행길이 기다렸고 천신만고로 일으킨 이 생명이 요람기도 넘기지 못하고 꺼져버릴수 있었던 전쟁이 3년이나 길게도 늘어져있었다. 그다음에는 제대미와 헐벗은 인민이 그이께 운명을 맡기고있었다.

불행이였는가,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는가. 이 조선의 삶과 승리를 위하여 력사는 그이께 이런 험난한 길을 쉼없이 맡겨드릴수밖에 없었다. 뒤에는 압록강, 앞에는 불에 타 몰부림치는 강토, 조국이 끝나는 이 기슭에서 꿍꿍연히 공화국을 버리고 몸을 사리겠다는 배신자들을 불을 토하시듯 단죄하시며 반공격화살표를 그으신 고산진의 음산한 초겨울도 있었다. 제대미에서 무슨 중공업인가, 작은 나라가 공업화와 협동화는 또 무엇인가고 사사건건 시비중상하는 대국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잘길은 우리가 안다고 추상같은 선언을 내리시던 길, 내다시는 이런 걸음을 걷지 않겠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제힘으로 일어서야 하오! 제힘으로 말이요! 라고 비장한 결심을 내리시며 조국으로 돌아오시던 그 빼아픈 하늘길도 있었다.

그때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인민들에게 말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 그 모든것을 혼자서 삭이고 덮어두시며 풀어나가시느라 마음속에 재가 더 많이 앉으셨고 피와 눈물이 더 아프게 고이셨다. 앞에는 적이, 옆에는 이 길, 저 길을 혼시하는 대국주의자들, 등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이 길의 명을 자르려고 어둠속에서 칼을 갈고있었다.

정녕 그것이면 끝나는 길이였던가. 금방 재대미를 헐고 일어나 이제야 한창 락을 누리기 시작한 인민에게서 그 행복을 덮어다시 허리띠를 조이라고 할수밖에 없었던 병진로선, 그것을 채택하시자니 너무 억이 막히시여 눈금을 적시시며 며칠밤을 새워야 하셨던 그 고뇌의 언덕도 넘어서야 하였다. 그렇게 억천만번의 돌진끝에 한치 또 한치가 열리였다. 단순한 전국이 아니라 하나의 새 조국과 새시대, 어찌 보면 새 민족까지도 다시 낳아야 하는 위대한 시조의 길이였다.

그때야 알았다. 전승의 황장을 지나고 천리마에 앉아 하늘을 날며 공업화의 봉음으로 신생조선의 힘을 세계로 뻗칠 때, 세상사람들이 영웅적인민이라고 손을 흔들던 그때 인민은 걸어온 길에 삼가 경의를 드리였다. 그것은 력사의 어느 시대 그 어느 당과 인민도 아직 이루어보지 못한 가장 눈부신 승리의 길이였고 그 어느 영웅도 지녀본적 없는 위대한 영광을 가슴에 혼장처럼 무겁게 달아주는 길이였다는것을 누구나 뿌듯이 체험했다.

하나하나 평생소원 푸시며 쉬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길을 따라 가난에 주그러진 땅들이 깊은 주름을 펴고 사회주의옥토로 새 지도를 그리였다. 황량하던 들판에는 새 공장, 새 거리, 새 마을이 파도처럼 피저갔다. 들에서 비날론이 나오고 돌산에서 황금을 따내며 물이 고기로 바뀌여 쏟아졌다. 우리 수령님 인민의 리상을 쉬임없이 그리며 가신 그 길에서 허리굽은 천덕꾸러기농민들이 혁명가로 자라 시대에 높이 섰고 어제날의 야장쟁이가 영웅적로동계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수많은 천리마기수, 강철의 붉은 선구자들이 자라나 시대의 주석단을 가득채웠다.

위대한 그이께서는 기어이 승리하시였고 혁명의 모든 전선에서는 백승의 만세소리가 요란히 울리였다. 그 고귀한 열매들은 이 나라 매 사람, 매 가정, 매 고장들에 흘리고 바친 피와 땀과 눈물만큼 기쁨과 영광과 목리를 드리였다. 만경대사립문에서 개선문까지, 전국의 첫삽을 뜨던 빈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까지 우리 수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나라 인민과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승리와 행복의 희열이 참으로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하시였고 남들은 강명으로나 외우던 인민의 리상이 무엇인가를 한 시대에 걸쳐 누구나 만져보고 느끼며 많이도 향유하게 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들에게서 자주 듣는 60년대 이야기, 참으로 보옥같은 세월, 기름지고 열매가 주렁진 황금의 시대였다. 상점에는 사탕이 쌓여 녹아내리고 고기와 알이 제화되여 집집의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은 월사금이라는 말을 몰라 사전을 뒤적거리던 세월, 이제 와서 보면 인민의 리상향이 저 멀리에 있는 꿈이 아니였으며 그 시대 사람들은 행복속에 묻혀 풍요한 그 한 시대를 다 모르고 지나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에 차오른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위대한 나의 인민!

바로 그 힘이였다. 우리 수령님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한생의 공격행로에는 위대한 심장이 있고 뜨거운 피와 열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투쟁전술이나 기질이기 전에 미증유의 개척과 탄생을 안은 위대한 시조의 성스러운 사명, 혁명과 인민에 대한 불덩이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높뛰는 뜨거운 심장의 명령이였다. 그래서 그 선택은 사랑의 본능이였고 공격 또 공격은 심장의 론리였으며 이길수밖에 없는 비결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태양의 힘이였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설사 그 길에 지뢰밭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

백전백승의 위대한 김일성공격정신의 제일체현자, 제일계승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이 강철의 신념!

그것은 가장 숭고한 혁명관의 계승, 가장 무자비한 반제계급투쟁의 계승이였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 후손만대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해뜻한 량심, 무한한 희생정신의 철저한 계승이였다.

계승도 또 하나의 피어린 개척이다.

공격이냐 후퇴냐,

한걸음, 한걸음 때 순간들이 이 물음앞에 서야 했다. 그것은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통남산의 맹세를 지켜 백두의 피줄기를 이어가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관가름이였다.

피줄을 이으려는 생명의 힘보다 강한것은 없다.

동무들, 저 기발을 보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 기발을 휘날려야 합니다. …

새벽이슬에 젖은 잊을수 없는 6월의 탕중앙구내길에서 우리 장군님 자신의 심장처럼 끓으신 그 붉은기는 바로 수령님의 한생이였고 언제나 굴함없이 승리만을 이룩하는 혁명정신의 상징이였다.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타오르는 불길이였던 이 기발을 따라 2월 19일의 아침노을이 붉어왔고 유일이라는 이 두 글자로부터 주체형의 맑은 피만을 지닌 일심단결의 우리 당이 또 하나의 한생과 같은 력사의 새시대를 맞이했다.

당의 력사에서 지난 35년간, 그가운데서도 1990년대는 로성없는 전쟁속에서 우리 혁명과 인민의 운명이 두번다시 수호되고 조선이 강성국가의 도약대에 오른 영원히 잊을수 없는 전설같은 기적의 대장정이였다. 세계도처에서 사회주의가 바람에 불이 꺼지듯 어둠속으로 사라져가던 그때 우리의 붉은기는 광풍을 맞받아 활활 타오르는 태불이 되여 온 세계앞에 조선은 살아있으며 승리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앞에는 전선길, 뒤에는 숨죽은 공장과 불빛이 꺼진 거리, 말이 쉽지 그때 이것은 운명과 선택에 대한 최대의 시련이였다. 무엇이 공격이고 무엇이 후퇴였는가, 무엇이 이기는 길이고 무엇이 지는 길이였던가.

선군이였다. 총대가 시련을 이기는 길, 인민에 대한 가장 깨끗한 량심과 진실한 사랑이였고 그것이 바로 죽어도 살아도 수령님을 따라가는 길이였다. 허나 그 길은 진정 쉽게 갈수 있는 길이였던가. 오죽했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우리 당의 신념으로 내세우시고 사랑하는 많고많은 노래중에서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그처럼 자주 부르시며 그것을 량심의 지울처럼, 말을 찐 동지처럼 가슴속에 틀으시였겠는가.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이것이 피어린 고난의 그 세월 이 나라 천만의 인민을 살붙이처럼 껴안은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가 서야 할 자리였다. 어머니가 걸단코 가야 할 길이였고 기꺼이 감당하여야 할 시련이였다. 이제는 지도나 사전을 번지지 않아도 누구나 다 외우는 전선의 지명들과 강계와 락원, 성강의 강행군길, 자위의 국방성새를 다지기 위해 걸으신 무수한 장정들은 백두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자욱의 계승이고 위대한 수령님 시대에 우리가 배우며 자란 굴함없는 혁명사상의 줄기찬 계승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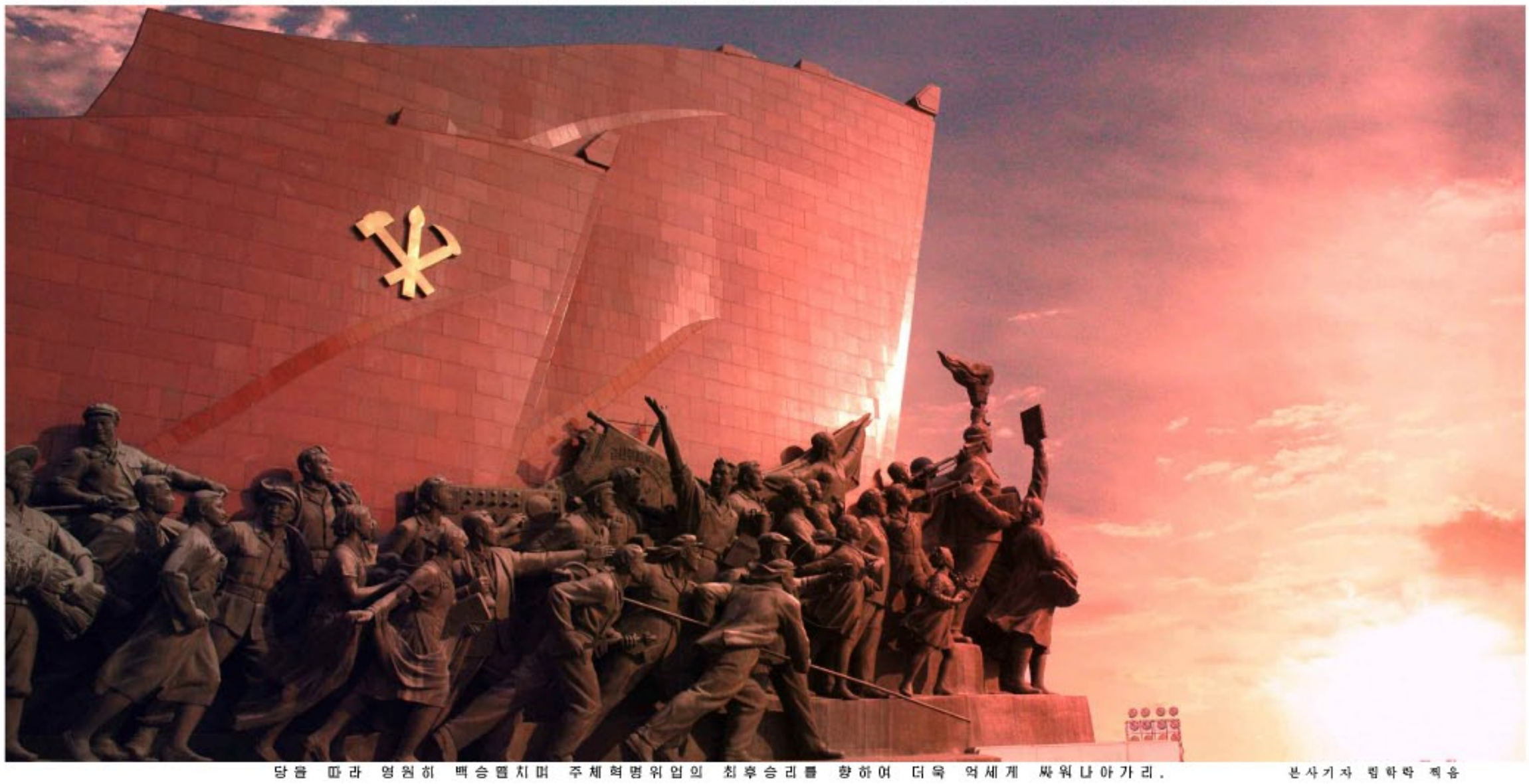
그렇게 가시고 또 가신 장군님의 앞에는 실로 넘기 힘든 큰 산이 있었다. 그너머에는 5,000년의 한을 푸는 이 나라의 꿈이 있었고 우리 세대와 자손만대의 손에 쥐여줄 기적의 보검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이 길과 수령님 세워주신 사회주의 우리 세상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끄떡없이 서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은 인류의 정의와 인간의 참된 삶을 위해 세대를 이어 굴함없이 싸워가는 조선인민에게 제국주의를 징벌하고 지원의 사상과 주체의 선군위업의 모든 승리를 다 이루게 하는 핵보유의 꿈을 성취하는것이였다. 그것은 담력과 배짱에 앞서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외면할수 없는 책임감이고 진정한 혁명가의 자존심과 해뜻한 량심이였다. 그것은 이 나라 인민과 후손만대에 대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였다. 승냥이들로부터 자기의 아들딸들과 귀중한 요람을 지켜야 하는 이 결단에서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어 죽음이 기다리고있다 해도 두렵없이 나갔다. 어머니가 쥔 그 백은 정의와 사랑과 량심의 최고절정이였다. 준엄했던 그 세월 인민은 기껏해야 눈비에 색이 바랜 장군님의 야전복과 전선길이야기만을 알고 왔다. 허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모진 고뇌와 시련을 혼자서 감당하시며 누구도 알수 없었던 그 큰 산을 초인간적인 의지로 몇번이나 넘고계시였다.

공격, 공격, 전진 또 공격, 이것은 자신께서 내리시는 끝없는 명령이였다. 그것은 혁명이 식지 않고 신념이 식지 않으며 사랑이 식지 않게 천백배로 불을 지피는 심장의 부름이였다. 이 나라 령이란 령, 길이란 길, 강이란 강 그 어디에 그이의 자욱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 있고 찾아가보지 못한 곳, 만나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달리는 야전렬차가 집이였고 강행군이 휴식이였으며 내리는 비가 옥비였고 차거운 눈보라가 정든 벗이 되였다. 어머니의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이의 길에는 인민이 아는 길보다 모르는 길이 더 많았다. 거기에는 두메산골 마지막집문까지 다 두드려보시며 천만의 식솔들과 일일이 만나 정을 주고 사랑을 나누시는 마음으로 걷는 길이 있었다. 천만가지 행복을 하나하나 그리시고 잘길에 다리도 놓아주고 리정표도 세워주며 쉼없이 멀리 앞서 다 가보시는 선견지명의 사색의 길도 있었다. 숨이 진 공장과 이 나라 가정들을 날날이 찾아가보시면서 사랑하는 인민의 정상에 남몰래 오열을 쏟은 누구도 보지 못한 눈물과 슬픔의 길도 있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속에 재가 쌓이쌓여 지치고 피곤한 폭잠속에서 그리운 수령님과 어머님을 만나 눈물겨운 대화를 나누신 사연길은 끝길도 있었다. 또 있었다. 강행군은 고사하고 서있기도 힘든 위중한 병을 사정없이 묻으시고 오랜 세월 달리시며 태양처럼 이 땅을 비쳐가신 자신과의 가혹한 싸움의 길도 있었다. 다름아닌 이 조선, 이 혁명, 이 인민때문이였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져도 대를 이어 기어이 수령님 시작하신 이 길, 수령님 낳아키운 이 인민을 지키시고 래일을 위한 궤도를 억척의 초석우에 놓아주어야 하시였기에 그이는 이렇게 강하시였다.

그때서 그이의 한생은 공격전의 지칠줄 모르는 나팔소리였고 펄펄 휘날리는 붉은기였다. 근 70년의 총정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한길에 다 묻으시였다. 적도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에네르기와 무쇠같이 단단하신 육체를 하루에 1년, 한해에 10년 맞잡이로 무차별적으로 연소시키시였다. 자신의 생애를 너무도 앞당겨 깡그리 다 부으시고 그것으로 압축하신 억천만배의 빛과 열과 무수한 피땀으로 인민이 가는 길에 강철의 포석을 깔아주시고 눈부신 등대를 세워주시였다. 자신의 생을 기꺼이 바쳐 위대한 수령님의 피줄기에 영원불멸의 숨결을 부어주시고 또 한분의 찬란한 태양의 거대한 추진력이 되여주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숨결마저 가다듬으시여 온 나라에 진군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주시려 질풍처럼 달리시다가 그 달리시는 모습으로 우리곁을 떠나신 우리의 김정일동지.

위인은 한생을 바쳐 길을 남긴다. 생은 끝나도 그 길은 계속되며 그 길은 영생의 길이와 일치하게 된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들은 바로 자신들의 위대한 생을 길로 남기시였다. 자신들의 위대한 두 심장을 합쳐 하나의 피줄기처럼 우리에게 길을 틀려주시였다. 자신들의 고결한 뜻과 리념을 길로 씨놓으시였으며 한생의 고뇌와 아픔, 기쁨과 영광, 꿈과 희망을 진주보석처럼 그 길에 깔아주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당을 따라 영원히 백승떨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가리.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2면에서 계속

혁명의 길은 눈으로 볼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수도 없으며 km로 잴수도 없다. 바로 우리 수령님들을 우러르면 그 길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고 수령님들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운명의 복이 있고 가는 길의 복이 있다. 우리 수령님들께서는 생의 한계와 함께 당대에만 사신것이 아니였다. 태양의 천리혜안으로 우리 세대와 머나먼 세월을 앞서 나가시여 만대의 한끝까지 다 밝아보시고 일일이 가늠해보시였으며 그 모든것의 총화로써 우리에게 이 길을 넘겨주시였다. 그리고 이 길의 매 굽이에 우리 세대와 후손만대가 무궁토록 잊지 말아야 할 불멸의 철리를 비문처럼 새겨넣으시였다.

살아도 죽어도 끝까지!

이것이 위대한 태양이 그어준 이 나라의 영원한 갈길이며 천추만대가 길이길이 물려갈 소중한 승리의 유산이다.

2

남산의 푸른 소나무!

위대한 당을 따라 영광의 만리길에 오른 우리는 어찌하여 저 아득한 력사의 새벽길에 자신을 다시 세우며 혁명정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이 푸른 소나무의 노래를 영원한 혁명의 주제가로 높이 부르는것인가.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력사적인 5월의 분수령에서 우리 세대가 뼈와 살에 쪼아박아야 할 고귀한 정신에 대해 천명해주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

동무야, 알겠느냐.

양춘은 눈서리를 이겨내야 오고 혁명은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굴하지 않는 정신과 대를 이어 싸워가는 오직 한길에 있다는 이 노래는 이제 먼길을 가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억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재보이며 혁보다도 강한 필승의 힘이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정녕 강한 조선의 모습이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한생의 상징과도 같다.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계속혁명정신이 응축되여있고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는 우리 세대의 의지가 맥동치고있다.

끝까지! 길에 철학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천리를 왔어도 도중에 끝나면 한걸음보다 못하고 대를 이어 오랜 세월을 왔어도 길을 바꾸면 그 위업은 단명을 면치 못한다. 혁명은 시작도 어렵지만 끝까지 가는것이 더 어렵다. 개척도 위대하고 계승도 위대하였지만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그 모든것은 헛된 피와 빛을 잃은 추억으로 남을수밖에 없으며 뿌리와 줄기는 억세게 자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와 다를바 없게 된다.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은 바로 최종적으로는 이 끝까지가 없어 혈맥이 잘리우고 력사속으로 사라져갔다. 공산주의운동의 창시자의 뒤에는 제2의 바이올린수가 있었고 사회주의의 첫 수령의 뒤에는 그의 후계자도자가 혁명의 한 시대를 열어왔다. 그러나 그것을 또 이어 끝까지 나갈 세대가 있었는가.

남들은 한번두번 대가 바뀔 때마다 이 길, 저 길 방황하며 지리멸렬하였지만 조선은 달랐다. 조선은 시작도, 이어줄 세대도 한길이고 오늘도 래일도 끝까지 그 길뿐이다. 끝까지 가야만 하고 끝까지 가면 되는 길, 가면 이기게만 되여있는것이 우리가 가는 조선혁명의 길이다.

우리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앞에 가로놓인 난관들을 파감히 이겨내며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개척해나가면 진짜 세상을 발아래로 굽어볼수 있다는 그 높은 뜻, 이것이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끝까지정신으로 삼천리 이 강산에 최후승리의 양춘을 기어이 불러오시려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신념이다. 우리 수령님 력사의 불모지를 갈아엎고 하나하나 꾸려주신 사회주의터전에, 우리 장군님 고난의 피눈물을 삼키시며 세워주신 강성국가의 기둥우에 천하제일강국의 큰집을 지어 인민에게 드리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소원이다.

이 행성에서 제국주의폭제가 저 멀리 옛시대로 물러가고 세상에 부럼없는 화목한 대가정의 향기가 그윽하게 감돌며 인류가 조선을 정히 바라보는 진정한 백두산대국의 시대, 《조국찬가》의 구절구절로 삼천리 이 강산을 옥같이 다듬고 황금으로 주렁지워 자손만대가 복락을 누려가는 나라, 우리 수령님들의 령전에 만복의 꽃바다를 아름답게 펼쳐드리고 세세년년 다함없는 감사와 인민의 경의를 드리며 사는 세월…

누구에게는 이것이 아득한 먼길의 반짝이는 꿈이라 할지라도 끝까지의 강자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세대인 우리들에게는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보인다. 물론 오늘의 시련은 숨막힐만큼 절벽협산들이 사방을 둘러치고 첫걸음부터 끈질기게 가로막고 불질하며 달려들면 원쑤들이 이제 더는 갈길이 없다고 소란을 떨며 최후의 결판을 보겠다고 호언장담하고있다. 그들은 주체혁명이 이 세기에 영원히 막을 내리게 하고 지구상에서 자주적인류의 마지막희망을 철저히 묻어버리려는 전략적야망으로부터 오늘의 조선과 우리 세대를 택했다.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력사에서 오늘처럼 준엄한 시기는 없었다. 그러나 가야 할 이 길은 우리 수령님들의 심장과 같은것이며 그것을 잃으면 우리가 죽는 인민의 피줄기와 같은것이다.

지난 4년 남짓한 기간은 바로 이 길을 없애버리려는 적들과 이 길을 끝까지 가려는 인민간의 결사의 전쟁으로 흘러갔다. 우리 세대의 길을 바꾸어놓지 못하면 원쑤들에게는 더는 살아남을수 없는 력사의 종말로 되기에, 또한 우리에게는 이 대결전에서만 이기면 그뒤에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최후의 승리가 있기에 이 전쟁은 그 격렬함에 있어서 인류사의 모든 대결전을 초월한 최대의 관가리였다.

처음에는 새로운 선택과 길을 바꾸면 력사가 평가할것이라는 유혹협박공세를 들이댔다. 이에 대한 단호한 반타격에 최고존엄과 수뇌부를 노린 《인권》공세를 국제화하는데 달라붙었다. 이에 대한 초강도고압타격에 얼이 빠진 적들은 음엔을 도용하여 수차례에 걸치는 제재를 발동하였다. 오늘은 유엔사상 있어본적 없는 한 나라에 대한 가장 잔인한 봉쇄로 세계적규모에서 조선 《고사》작전에 달라붙었다. 그와 동시에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자기의 전략적자산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이미 그 몇단계를 넘어섰다.

핵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리적힘이기 전에 신념문제이다. 끝까지 이 길을 가는가 포기하는가, 끝까지 최후승리를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폭제의 핵을 제압하는 우리 핵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승리의 유산인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정화이며 그것은 앞날의 많은것을 담보해주는 만복의 보검이다.

오늘의 공격전은 어제날과 다르다. 군사적으로 비유한다면 오랜 기간의 공방전끝에 드디여 최후진격을 개시한 총공격전과 같다고 할수 있다. 그 목표와 돌격침로와 분출되는 힘의 가속도는 다르다.

압박하고 달려들수록 더욱 강해지고 무자비해지는 힘, 고난과 역경이 쌓여질수록 더욱 승리를 선명히 느끼는 힘, 전드리면 치는 반타격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정의와 전략적결단에 따라 먼저 짓뭉개버리는 선제타격이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라, 싸우겠으면 네가 죽어야 하고 살겠으면 네가 변하라는것이 제국주의와 세계반동세력에 대한 조선의 대답이다.

공격은 승리이고 승리는 공격이다.

그것이 넘어설수 없는 험산이라 해도, 설사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해도 주저없이 나가라, 이것은 끝없이 울려오는 우리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당부였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혁명철개와 3대각오정신이 다시 우리 세대를 부르는 웨침이였다.

오늘의 생눈길 첫걸음은 이 혁명, 이 인민이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시작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원수님 력사적인 첫해의 첫아침을 사연깊은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아 병사들과 말을 씌고 어깨겯고 전선에서 맞으시였다. 우리가 누구이며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가를 세계앞에 선언하시기 위하여 련이어 위험천만한 초도의 배짬과 한발자욱이면 적진인 판문점시찰을 단행하시였다.

정 갈수 없다면 난 입에 뺄대를 물고 혀염을 쳐서라도 가겠소. …

4년 수개월의 드세찬 공격전에서 하나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장재도의 바다길, 거대한 적의 함선들과 첨단잠시망, 초정밀화력장비들이 진을 친 서해의 엄점지역이였어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주저없이 가서야 했고 반드시 가서야 했다. 가서야 최전방 한끝의 병사들과 뜨거운 혈맥을 이을수 있기에 27마력의 작은 목선에 오르시여 사품치는 파도우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이께서는 가시였다. 바다는 땅이 아니였다. 그러나 병사들은 그이와 헤여질수 없어 바다를 땅길처럼 생각하며 정신없이 따라 달려왔으니 그 눈물겨운 화폭은 오늘도 온 세계의 망막에 사진처럼 찍혀져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에게는 다 말해줄수 없으시여 속으로 썩이시며 맞받아 헤쳐야 했던 그런 시련들이 더 크게 그이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것때문에 머리가 희여졌다고 하신 반당반혁명종파가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 현대관종파로 그 허울을 바꾸고 또다시 우리 당의 정로에 보이지 않는 빗장을 지르고 있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으시며, 며칠동안 아픈 가슴을 태우시며 선택하셔야 했던 그 로선, 우리 장군님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가신 그 길과 다름없는 준엄한 결단들이 그이의 앞에 산처럼 쌓여있었다. 그것이 원쑤들이 집집하여 막아나선 력사적인 3월의 병진로선이였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어느 한걸음이 흔들리고 지체된적이 있었는가. 고금동서가 놀라운 시선으로 우러러보는 전설적인 공격형의 백두령장, 그 배짱은 세계가 숨을 죽일 정도이며 그 공격력은 아직 그 어느 력사에도 기록된적이 없는 초강도, 초고압의 돌진력이였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로 솟구쳐오르고 현대관종파는 땅속에 처박혔다. 우리의 핵시험을 두고 발광하는 적들에게 그에 비할바없이 강력한 수소탄보유라는 드세찬 뢰성이 차례졌다. 세계력사상 전에없는 전쟁연습과 제재책동에 핵무기소형화와 지구상의 모든 악의 소굴을 타격권안에 넣은 대륙간탄도로케트,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의 대성공으로써 그 모든것을 무색케 하였다.

정의는 내려치는 마치이고 부정의는 맞아 부서지는 돌쪼각에 불과하다. 맞받아 한번씩 역경을 물리칠 때마다 주저앉았어야 할 조선이 하늘높이 솟구쳐올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빛을 뿌리였다. 우리는 기적의 새 문명속에서 한없이 자애로우신 우리 수령님의 따뜻한 품을 다시 느꼈고 못 견디게 그리운 우리 장군님을 매일같이 뵈오며 이름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21세기의 기적, 위대한 김정은신화이다. 그것은 눈부신 우리 태양의 힘이다. 엄혹한 겨울과 지구의 그림자인 어둠은 계절과 자전운동에 따라 오고가지만 태양은 변함없이 그 모든것을 밀어내며 빛과 양춘을 준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이신 그이께서는 추호의 흔들림없이 그 불변의 열과 빛으로 닥쳐오는 모든 역경을 다 물리치시며 우리의 삶에 따스한 봄과 열정의 여름과 풍요한 승리의 가을을 안겨주시였다.

허나 압살의 얼음산을 부시고 죽음의 지뢰밭을 헤치며 가는 그 길이 어디 간단한것인가. 1년이 10년의 길이만큼 압축되여 흘렀고 4년이 40년 맞잡이로 간고했던 우리의 길, 발을 뗀 동지도 있고 어깨를 겯고 선 전우도 있었으며 일편단심의 더운 피를 안은 훌륭한 인민도 있었다. 그러나 이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오직 그이께서만이 앞장서 열어가셔야 하였다. 그이께서 내쉬고 마는 호흡만큼, 쏟아부으시는 피와 땀의 무게만큼 비약의 높이가 그어지고 우리 당의 공격속도의 시간표가 세워졌다. 그 무한대한 예지의 빛과 사랑의 열로 밀려오는 먹구름과 사나운 혹한을 밀어버리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우리 수령님께서 열어오신 개척의 천만리,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오신 계승의 천만리가 그이께 맡겨졌고 우리 수령님들께서 한정생 키워주신 인민, 두번이나 피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재더미와 고난의 행군이라는 두차례의 시련을 다 겪은 그 인민에게 이제는 행복의 풍요한 세월을 안겨주어야 할 우리 당의 숭고한 보람이 그이께 지워져있었다.

얼마나 자신이 철벽때로 강해야 하셨으면 우리 혁명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혁명하는 과정에 피를 흘릴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혁명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것을 똑 보게 될것입니다라고 우리 원수님 그렇게도 비장한 심중을 토로하시였겠는가. 그래서 때없이 자주 백두산에 오르시였고 오르시여서는 칼바람, 눈보라들풍을 맞으시며 오히려 혼혼한 바람이라고 백두산의 희열을 느끼시였다. 얼마나 공격속도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땅과 바다로 질주하는 강행군도 성차지 않으시여 저 하늘에로 강행군비행운을 새겨가셨으랴.

한치한치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것이 너무 힘드시여 때로는 남모르게 자신과 싸우신 밤들이 그 얼마였으랴. 그리운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이 간절하시여 초용히 눈굽을 찍으신 날들은 또 얼마였으랴. 이 나라 인민을 문명의 새 요람에 앉혀주시려 쏟으신 사색과 그리신 설계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현지지도는 또 얼마였으랴.

허나 인민이 본 그이의 모습은 언제나 환히 웃고계셨다. 고난이 크고 원쑤가 기승을 부릴수록 그이의 배짱은 더 담대무쌍해졌고 그이의 미소는 여느때와 같이 더 환하고 눈이 부시였다. 보통의 정치가는 아예 넋살이 빠져 주저앉았을 이 길, 세계가 속을 조이며 시시각각 바라보는 오늘의 이 난국을 그이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겨울에도 봄날에도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헤쳐가고계신다.

이해의 첫아침 우리가 이제 또 큰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시며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신 우리 원수님.

올해의 고생길은 내가 다 걷고 인민들에게는 그 고생길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

폐지어 달려드는 적들과의 전쟁보다 더 치렬한 로성없는 압살공세를 자신께서 앞장에서 뚫고가시고 인민은 자신의 등에 정히 업고 그 모든 사선의 길, 험난한 진펄길을 건너가시려는분, 시련의 눈비를 막아주는 억센 지붕이 되시고 침략의 불길을 막아주는 무쇠철갑이 되시여 인민을 품에 안아 지켜주시려는분, 자신의 절사분투의 피땀으로 엮은 최후승리의 월계관을 인민의 가슴에 안겨주시려는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다.

그래서 인민은 그이를 자나깨나 무한히, 정녕 눈굽을 적시며 그리워한다. 줄곧 믿심은 신심으로만 가득차있고 전쟁이든 세계대전이든 원수님만 계시면, 그이와 함께라면 그쯤한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적은 강하나 우린 더 강하다. 적은 고압이나 우리는 초고압이다. 어쨌든 우리는 또 이긴다, 미제, 너는 죽고 조선, 우리는 이긴다. 나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이 나라의 매 사람들, 모든 일터와 거리, 학교와 집집에 들려 물어보아도 이 대답이 단마디로 튀여나온다. 진다는 말을 언제 한번 외워본적 없으며 오직 이기는데만 습관되고 이기지 않으면 조선말이 아니고 조선이 아니라는 관념이 이제는 생활속에 꼭 배여있는 우리 인민이다.

황금과 부유속에서 부패된 국가는 있어도 고난과의 투쟁속에서 사멸된 인민은 없다. 제재는 공격보다 취약하다. 제재는 약자가 하고 공격은 강자가 한다. 제재앞에 피동은 고사로 가는 길이지만 드세찬 공격은 그것을 씹은 나무울타리로밖에 보지 않는다. 철권의 진을 친것이 지경의 신작로나 몇푼의 돈은 막아낼지 몰라도 조선이 가는 신념의 길은 아무도 막을수 없다.

이 지구상의 모든 불가능과 시련의 난파도를 다 보아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라. 봉쇄와 압박은 자기 길의 진리성과 신념을 간직한 인민에게는 자강의 힘을 메가톤급의 폭발만큼 가중시키고 그 정신을 천백때로 버려줄뿐이며 그것은 세계앞에서 우리 인민의 주체철학의 힘을 또 한차례 장엄하게 과시하는 결정적기회이기도 하다.

이 땅엔 태양의 자손들이 산다. 어둠과 동토대는 더는 시련이 아니다. 기어이 큰 산을 넘어선 지금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지위와 한세기의 압축과 맞먹는 힘을 감촉하며 누구나 곧 시작될 파감한 대약진을 예감하고있다.

우리 원수님께서 력명거리건설은 우리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것을 선포한것이나 같다고 하신 그 숭고한 의지를 받들고 원쑤들에게 누가 죽어 땅속에 처박히고 누가 살아 하늘에 나래쳐오르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자며 결사의 대전실전역을 펼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와 어머니당에 드리는 고귀한 로력적선물인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발사의 대성공,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창조물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새 언제찬공 그리고 70일전투철야전군속에 시대의 전형단위들의 련이은 창조와 어디서나 떨어오르는 초파수행의 붉은 도표들, 페지마다 가득 채워지는 전투기록장으로 조국은 마냥 들끓으며 약동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정세는 엄혹해도 우리의 거리는 화창하고 우리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스하며 아이들은 꽃을 들고 노래높이 거리를 누비고있다. 생활은 더 안정되고 살림은 하나둘 펴이고 세계적수준의 우리 제품, 우리 발명품들이 점점 련속, 다발적으로 쏟아지며 새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쉬임없이 달려와 우리와 상봉하고있다.

천하제일강국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인민이 손에 쥔 핵보검은 영원한 평화의 푸른 하늘을 열었다. 이제는 우리 군대의 핵공격력이 하늘과 땅은 물론 보이지 않는 바다속에서까지 전면적으로 갖추어진것은 말없이 조선이 대국임을 선포한것이나 같다. 세계에 하나뿐인 절대만능의 일심단결, 스스로 강해지고 강해져 세계와 겨루는 우리의 자강력, 로동당의 거대한 혁명자본인 주체과학과 인재바다, 세계가 침을 흘리며 건너다보는 천연자원보유국… 번쩍이며 지나간것 같은 짧은 나날에 우리 당은 그 황금의 열매를 벌써 하나씩 무르익혀 인민의 손에 쥐여주었다. 결코 먼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이제는 눈부신 직선대로가 뻗어있을뿐 모든것은 우리의 각오와 속도에 달려있다.

조선의 력사적인 승리이며 인민의 대경사이고 무한한 영광인 우리 당 제7차대회, 이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광의 주석단에 높이 모시고 전세대의 모든 혁명선렬들이 다 함께 참가하는 성스러운 대회이며 이 대회의 진정한 정신은 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삼천리강토에 주체혁명 만만세의 메아리가 울려퍼지게 하리라는 우리 세대의 장엄한 맹세일것이다.

시대는 달라져도 우리가 갈길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주체혁명의 새 세대라면 적들은 반혁명의 후예일것이다. 우리는 대를 이어 승리만을 펼쳐온 존엄있는 영광의 세대, 적들은 우리앞에 대를 이어가며 패배와 치욕을 당한 불행의 씨족들, 이번엔 다르다. 또 한페지 패배의 기록을 남겨주는것으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더는 맞설 대상이 아님을 최종적으로 결속해야 하는 마지막 싸움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제 식으로 그어놓은 선을 따라 돌고있는 이 행성의 질서를 이 조선이 바로잡을것이다. 오늘은 조선이 단신으로 가는 이 길, 어느때인가는 세계가 따라서고 누구나 함께 가는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놓을것이다.

유럽에 공산주의유령이 떠돈다고 했던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나 또 근 70년, 진보적인류의 국제가인 《인터나쇼날》의 노래는 자기의 장엄한 선률에 승리의 력사만이 아닌 불피의 가슴아픈 장도 남겼다. 그러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노래로 대를 이어 싸워가는 이 땅에선 자주위업의 최후승리가 21세기의 양춘으로 우리 원수님 시대에 새로운 려명기를 맞이하였다. 자기의 마지막희망을 바로 조선의 혁명가들, 정의롭고 강의한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의탁했다. 일어나라 저주로 인맞은 주리고 종된자 세계를 부르며 개무리와 도살자에게는 큰 벼락 쏟아져도 우리의 머리우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리라고 웨친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위대한 승리로써 인류앞에 증명해줄것이다. 바로 그 찬란한 태양은 정의와 신념의 화신이신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동지이시라는것을.

21세기의 위대한 우리 태양 김정은동지만세!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혁명정신은 영원불멸하리라!

동 태 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희망찬 미래에로 나아가는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아름다운 우리 시대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사회주의송가

사경에 처한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나흘째되던 날 이른새벽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구내를 오래도록 거니는 한 처녀가 있었다.

환자의 생명은 무엇으로 담보되는가

사경에 처한 청진경공업대학 학생이였던 김봉향동무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실려온것은 지난해 11월이였다.

환자는 최중증상태였다. 체온은 39℃, 분당 맥박은 130회, 호흡은 30회, 심한 위출혈로 몸안의 70%의 피가 소실…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 김봉향동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겨우 가려들었다.

《저는 곧 부대로 돌아가 훈련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투비행사였다. 생사를 기약할 길이 없는 그를 두고 아버지는 떠나갔다. 곁에는 생면부지의 의사들과 간호원, 환자들뿐.

이제 환자의 생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 시각 의사들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곧 법이라고 하던 전투비행사의 말을 되새길수록 자신들에게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지켜야 할 신성한 법이 있다는 생각이 사무쳐왔던것이다.

인민에 대한 고결한 사랑으로 충만된 인민보건법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보건일군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법전이였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정성을 낳는 그 법전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사는 보건일군들이 있어 이 땅에서는 소생불가능의 중환자들을 살려내는 기적이 그 얼마나 끊임없이 태여나고있는것인가.

그날 소화기내과학장과에서는 의사협의회가 진행되고 3명의 담당의사가 임명되는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10여차에 걸치는 수혈이 진행되였고 귀한 약물들이 련이어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었다.

홍석관, 장영진동무를 비롯한 병원일군들은 매일같이 치료정형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웠으며 강과장 최정화, 과장 정남훈동무는 치료조직을 짜고들어 환자치료에 자그마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담당의사들인 김현옥, 리광호, 장호동무들은 물론 과안의 전체 의사, 간호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들은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로운 나날에 중태에 빠진 딸을 위에 남기고 훈련길을 떠나가던 전투비행사의 모습을 생각했다.

전투비행사의 일분일초는 보통사람들의 한생과도 맞먹는 귀중한 순간이다. 그런 귀중한 순간에 잠시라도 딸에 대한 걱정이 실린다면 그만큼 비행사가 지켜선 조국의 푸른 하늘에 공백이 생긴다는 자각이 의사, 간호원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치료의 나날이 흐를수록 김봉향동무에게는 그렇게 바쳐지는 정성이 너무나도 고마왔고 때로는 송구스러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에 어느날 깊은 밤 갑자기 장유착으로 인한 아픔이 왔을 때 의사들을 찾지 않은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상태를 손금보듯 파악하고 동통이 일어날수 있는 시간까지도 예상하고있던 의사들이 어찌 그것을 모를수 있으랴.

뜬눈으로 밤을 밝히며 자기 초소를 지키던 김현옥동무가 제일 먼저 들어섰고 나중에는 오늘 하루만은 무조건 퇴근하라는 과장의 《명령》에 못 이겨 집으로 갔다던 리광호동무까지 달려왔다.

그때 그의 손에는 귀한 보약단지가 들려있었다. 그가 집으로 퇴근한것이 아니라 보약을 구하기 위해 멀리 친척집에 다녀왔다는것을 알게 된 의사들의 감동도 컸지만 그 보약단지를 받아안은 김봉향동무의 심정을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랴.

눈물만 흘리는 김봉향동무에게 김현옥동무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흔히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곳이 병원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돌려보면 울면서 병원에 왔다가 피눈물을 뿌리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의미심장한 그 말속에서 김봉향동무는 깨달았다. 정법한 인민에게 웃음을 주고 생의 희망을 주는 병원은 오직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해줄 의무가 신성한 법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만 있다는것을.

김봉향동무는 만나는 의사들과 간호원들모두가 고마왔다. 하지만 그는 알수 없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보건제도의 혜택속에 흘러간 90여일, 10여종에 1만여점에 달하는 약들이 소비되고 백수십차에 걸치는 각종 검진이 진행된 그 나날에 자기 한사람을 위하여 옹근 한권의 책에 맞먹는 두터운 병력서가 작성되였다는것을 김봉향동무가 어찌 다 알수 있으랴.

김봉향동무가 퇴원한 후에도 정남훈동무는 종종 그 병력서를 펼쳐보군 한다. 인민사랑의 법을 지켜온 잊지 못할 추억이 깃든 병력서를 번질 때면 대학생이 되여 첫 강의를 받던 날 백발의 로교수가 해주던 말이 떠오른다고 한다.

그때 강의에 앞서 신입생들에게 인민보건법에 대하여 아는 학생이 있느냐고 물어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전집》 제71권에 제7장 제49조로 이루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의 원문이 있다.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신성한 법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저작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생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한자한자 쓰신 사랑의 법전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었다.

례사로운 인사말에 깃든 의미

입원초기에 김봉향동무는 심한 소화장애로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다.

극도로 쇠약해진 그의 육체가 받아들일수 있는것은 육수뿐이였다. 의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보았지만 육수를 전문으로 만들어내는 국수집들만큼 그 진맛을 살려낼수 없었다.

당세포비서인 강정남동무는 생각끝에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창광봉사관리국의 일군들을 찾아갔다.

강정남동무로부터 사연을 들은 박경호, 조성심동무를 비롯한 창광봉사관리국의 일군들은 두말을 겉고나섰다. 환자의 식사보장은 우리가 전적으로 맡겠다는 그들에게 강정남동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때부터 창광봉사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단 하루도 번짐이 없이, 하루에도 몇번씩 시원한 소고기국물은 물론 여러가지 영양식품들을 안고 병원으로 찾아왔다. 김봉향동무의 건강이 회복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를 위해주는 창광봉사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정성은 더해만 갔다. 병원침대우에서 김봉향동무는 창광봉사관리국이 매 식당들에서 봉사하는 모든 음식을 다 맛보았다. 퇴원할무렵에는 계절에 따라 입을수 있는 옷들과 화장품까지 안고 찾아온 고마운 사람들, 정양에 친척이 없는 김봉향동무에게 그들은 혈연의 정을 나눈 친척이 되여주었다. 하지만 그 친척들을 김봉향동무보다 더 반갑게 맞이한 사람들은 강정남, 조혜경동무를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이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가 많다며 정답게 나누는 인사속에는 고맙다는 말들도 종종 오갔다.

김봉향동무는 또 그때로 응당 자신이 해야 할 인사,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할 말을 대신해주는 그들이 고마왔다. 이런 감사의 정이 마음속에 깃들면서부터 례사롭게 주고받던 고맙다는 인사말속에 담겨진 의미가 새롭게 안겨들기 시작하였다.

김봉향동무가 입원한 호실에는 중구역 동암1동에 사는 리지예라는 동갑나이처녀도 있었다. 함께 치료를 받는 환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아픔은 내색하지 않고 운신하기 힘들어하는 김봉향동무를 성의를 다해 돌봐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늦은저녁이였다. 어디로 갔는지 여러 시간이나 보이지 않던 리지예동무가 무엇인가 싸안고 들어섰다. 식기 전에 어서 들라며 내놓은 그것은 말린 조개살을 넣어 쑨 죽이였다.

김봉향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남달리 해산물을 좋아하는 그가 여담삼아 어릴적에 아버지가 쑤어주던 섬죽을 맛있게 먹던 이야기를 한것은 불과 몇시간전이였던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들던 리지예동무는 문득 어머니가 가져다준 말린 조개살에 생각이 미쳤다. 그것을 들고 식당에 찾아갔을 때 취사원들은 말린 조개살로 죽을 쑨다는 소리는 듣느니 처음이라고 허를 찼으나 김봉향동무에게 바다향기를 안겨주고 싶어하는 리지예동무의 심정을 알고서는 더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김봉향동무는 한술두술 죽을 들었다. 처음으로 맛보는 별식처럼 느껴졌다.

맛있게 죽을 드는 김봉향동무를 기쁜 눈길로 바라보던 리지예동무는 그가 식사를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봉향아, 고마워.》

《?》

《내가 쑨 죽을 맛있게 들어줘서.》

순간 김봉향동무는 눈앞이 흐려들었다.

(스쳐지날 한마디 소리도 가슴에 새겨두고서 마음써준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단 말이냐. 지예야, 정말 고마워. …)

그날 김봉향동무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정의 세계에서 자신이 살고있는가를 다시금 돌이켜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사경에 처한 자신을 정양까지 무사히 후송하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여주던 인민보안원 김철현동무며 이름도 모를 수많은 승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모두에게 아버지와 그가 할수 있은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였다.

병원에서 흘러간 하루하루가 새삼스럽게 돌이켜졌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수도 없는 무수한 치료비와 진단비, 값비싼 약값을 대신한 말도, 매일이다싶이 침대곁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기를 치료하고 간호해준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에게 한 말도, 창광봉사관리국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한 말도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가산을 통채로 팔아서도 살수 없는 그 정성, 그 인정, 그 사랑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말밖에 할수 없는 내 나라, 내 조국.

그러나 김봉향동무는 례사롭게 하면 고맙다는 인사말마저도 쉽게 할수 없었다.

그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였다. 모두다 한가정이 되여 혈육의 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진정, 바치는것이 기쁨인 우리 시대의 본태가 깃든 사회주의송가였다.

※ ※

지난 2월 26일 김봉향동무는 병원문을 나섰다.

그날 병원의 전체 의사, 간호원들은 물론 환자들까지 달려나와 김봉향동무를 바래워주었다. 환송의 꽃물결을 이룬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김봉향동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뭉클 젖어드는 격정에 목이 꽉 메였던것이다.

이 땅에 태여나 수천수만번은 더 외웠을 《고맙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조차 하지 못한채 평양을 떠나는 마지막순간까지 그는 눈물만 흘렸다.

김봉향동무가 평양을 떠난다는 소식에 접한 그의 아버지는 그즉시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의사들에게 보냈다. 수백수천장의 편지에도 못다 담을 감사의 정을 전투비행사는 짧막한 한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밖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비록 문장은 짧았어도 당과 수령에 대한 고마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생활의 전부를 이루고있는 우리 인민만이 안고 사는 순결한 감사의 정이 그속에 꽉 차있었다. 그래서인지 《고맙습니다.》라는 다섯글자가 의사들의 눈에는 《로동당만세》라는 글발처럼 안겨왔다.

본사기자 승철진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3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떡두의 붉은 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대회에 참가하게 된 긍지와 환희가 숙소마다에 넘쳐났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곽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정해동지, 김영철동지와 당, 무력기관 일군들이 숙소를 찾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헌신분투하면서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전례없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안고온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세상을 들었다놓는 특대사변들과 비약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온데 대해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함경남도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 생산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함경남도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이 함흥시의 거리들에서 달리고있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동해바다의 시원한 풍치와 잘 어울리는 색갈로 단장되고 나들문과 좌석, 음향설비 등이 편리하면서도 조화롭게 설치되여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더 잘 보장함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우리 식의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긴장한 돌격전을 벌려나갔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설비조립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고 내부에비를 적극 합구동원하면서 전차생산을 적극 내밀었다.

이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고 필요한 자재와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기한전에 계획된 무궤도전차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기쁨속에 리용하고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성과들을 이룩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돌파구를 열어간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올해에 들어와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수천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성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3대혁명소조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석탄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침가제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산소흡수제를 국산화하고 급수뽐프날개를 자체로 생산하며 금형주조에 의한 불련속주조장치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수풍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서두수발전소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현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발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2.8직동청년탄광, 명태탄광, 인포탄광, 명학탄광, 제남탄광, 덕천탄광, 룡수탄광, 고건원탄광, 강서탄광을 비롯한 각지 탄광들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전차와 탄차,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과 수리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탄부들이 갱막장에서 안전하게 석탄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데서 걸린 문제들을 찾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탄부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 재령광산, 은률광산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기술을 더욱 완비하고 철강재생산을 높이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식의 내화물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전투와 련속조괴기를 비롯한 설비의 현대화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해결에 창조적지혜를 아낌없이 바치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서평양기관차대, 평양철길대, 함흥역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철길의 안전성을 담보하며 려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 화학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장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구프레스의 기술개건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대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평도업적단위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농업과학기술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열정을 쌍그리 바치였다.

해주시 석천남새전문협동농장, 벽성군 서원협동농장, 안악군 룡산협동농장, 덕성협동농장, 남정농장, 은천군 덕천협동농장, 배천군 수원협동농장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각지 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농산과 축산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해주련결농기계공장, 옹진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하여 각지 부속품공장, 농기계공장, 농기계작업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훌륭한 기술혁신성과를 거두었다.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중주파 및 저주파유도로를 리용한 쇠물의 정련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여 뜨락또르부속품생산과 농기계생산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경영관리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혁신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9월방직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직기의 시동마찰판을 공장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보장하기 위한 새 기술혁신에서 성공하여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밖에도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희천정밀기계공장, 황해남도정보통신국, 장계오리공장, 중앙염망사업소, 평양학용품공장, 사리원수지마대공장, 백송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비상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기술혁신성과를 기록하였다.

이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을 따라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강원도당위원회, 황해북도당위원회, 자강도당위원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가 파견된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이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창조의 기수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한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투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뢰관이 되여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무산군 문암협동농장 제2작업반 7분조 선동원 최금숙동무

1992년 8월 16일은 최금숙동무의 선동원생활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다.

그날 그가 일하는 무산군 독소협동농장포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사가 참 잘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80고랑에 북변의 농장포전에까지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에서 3년째 선동원생활을 해오는 최금숙동무가 받은 충격은 컸다. 그날 그는 분조원들앞에서 영원히 그 모습 안고 살리라는 즉흥시를 읊었다. 그 즉흥시는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호소인 동시에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한생을 값있게 살려는 최금숙동무의 마음속맹세이기도 하였다.

헌신으로만, 호소로만 선동원의 임무가 원만히 수행되는것은 아니였다. 분조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으며 바로 그것이 선동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것을 그는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에 새기였다.

지난해 가을걷이전투때였다. 그날 분조는 계획했던 벼단묶기를 다 끝내지 못하여 저녁늦게까지 일하게 되였다. 하루종일 벼베기며 벼단묶기를 한 뒤라 다들 힘들어하는 빛이 력력했다.

논뚝에 덥덥히 앉아 휴식하는 분조원들을 돌려보던 최금숙동무는 조용히 낫을 들고 일어섰다. 논판에 들어서서 벼단묶기를 해나가는 최금숙동무의 입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목두칠성 저 멀리 떨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하는 선동원의 노래를 분조원들모두가 따라 부르며 일에 달라붙었다.

선동원의 노래소리에 힘든줄 모르고 일을 했다는 분조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선동원의 긍지를 한껏 느꼈다. 그는 늘 힘있는 노래로 분조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고 쉴참에는 포전방송기재의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춤판도 벌리면서 전투장에 랑만과 희열이 차넘치게 하였다.

분조에는 생활상고충으로 일하러 잘 나오지 않는 농장원부부가 있었다. 최금숙동무는 밤길도 걸었고 너무 속상해 눈물을 흘린적도 있었다. 단념할가 하고 생각한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눈앞에 안겨오는 모습이 있었다. 분조포전을 찾아오셨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였다. 그날에 다진 맹세를 벌써 잊었는가, 분조를 단합시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켜야 할 임무가 바로 선동원 최금숙, 너에게 달려있다 하는 마음속꾸짖음이 그를 분발시켰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주고 생활도 살뜰히 돌보아주는 선동원의 진정에 끌려 그 부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였다.

이런 뜨거운 진정은 분조원모두를 혁신자로 키웠고 그 파장에 분조는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어버이의 유훈지켜 순간순간을 값있게 수놓아온 그 나날에 최금숙동무는 선동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심장으로 체득하였으며 오늘은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으로 성장하였다.

본사기자 김향란

신의주마이싱공장 마이싱직장 균종작업반 선동원 김인숙동무

신의주마이싱공장 마이싱직장 균종작업반 선동원 김인숙동무를 두고 사람들은 작업반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어느해인가 작업반의 한 동무가 때없이 출근이 늦어져 사람들의 화제에 오른 일이 있었다. 정시에 맡은 일에서 벗타른 일이 없던 그가 그렇게 된데는 필경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김인숙동무는 그의 집을 찾아가보았다.

남편없이 어린 자식을 키우며 직장일을 하는 그의 생활상고충이 한눈에 안겨왔다. 문득 얼마전에 있은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종업원들의 집이 크게 손상되였다는 말을 들은 생각이 떠올랐다. 작업반원이 겪는 남모르는 애로를 알아보기 전에 추궁부터 앞세우려 했던 자기자신이 더없이 민망스러웠다.

다음날 그는 그 작업반원의 집을 다시 찾았다. 자기 집을 꾸리는데 쓰려고 구해두었던 세멘트로 울타리와 부엌도 수리해주고 장판종이와 도배종이를 구해다 발라주며 집안팎을 깨끗이 꾸리였다. 선동원의 뜨거운 진정에 그 작업반원은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후 그 작업반원은 맡은 일에 열성을 냈으며 혁신자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였다.

작업반의 한 처녀의 마음속에도 선동원에 대한 뜨거운 추억이 간직되여있다. 그가 뜻밖의 사고로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였다.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그는 근심어린 표정으로 침대머리맡에 앉아 자기의 두손을 꼭 쥐고있는 선동원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자기를 위해 남먼저 달려온 선동원의 땀젖은 모습을 보며 그는 상처의 아픔도 잊고 마음속진정을 터뜨렸다.

《인숙어머니!…》

그의 눈귀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뒤늦게야 병원으로 달려온 그의 어머니는 선동원의 두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다. 그때 김인숙동무는 흔연히 말하였다.

《우리야 한집안식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그는 반원들을 한집안식솔로 여기고 정을 쏟아왔다.

신임공들의 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며칠밤을 새운 사실이며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작업반의 한 동무가 자식때문에 걱정할것 같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돌봐준 사실…

지난 18년간의 나날들에 새겨진 이런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에는 그의 선동이 그토록 대중의 심금을 울리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다. 자식을 위하는 친어머니가 될 때 당정책관철에로 부르는 선동원의 목소리가 대중의 심장속에 더 깊이 와닿을수 있는것이다.

따뜻한 인정미, 이것이야말로 선동원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풍모이고 위력한 선동의 무기라고 할수 있다.

윤명철

혜산시편의봉사관리소 혜산작업반 선동원 리영숙동무

혜산시편의봉사관리소 혜산작업반 선동원 리영숙동무에게는 수십권의 선동원수첩이 있다.

땀에 절고 보름이 인 그 수첩들에는 20여년간 우리 선동원으로 불리우며 당정책관철에로 집단을 힘있게 떠밀어온 그의 한생이 비껴있다.

작업장소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편의봉사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동사업이여서 리영숙동무는 피타는 노력을 바쳤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나이와 지식정도가 각이한 작업반원들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겨줄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준비에 남모르는 정열을 바쳐왔다.

그는 어려운 일에 언제나 앞장서는것을 본분으로 여겨왔다. 백두산기슭에 선경을 펼치는 살림집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선동사업의 무대를 현장에 옮겨야겠다고 결심하고 짐을 나선 리영숙동무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휴식참마다 선동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기동적으로 벌렸다. 도로공사가 벌어지던 어느해 가을에는 급한 가정일도 미루고 공사장으로 자진하여 달려나가 이신작칙하면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킨 그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불붙는 집에 서슴없이 뛰여들었고 사경에 처한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

고난의 시기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한 종업원을 위해 가정에서 아껴두었던 식료품을 가져다주어 그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준 리영숙동무는 부모를 잃고 의지할데 없는 작업반의 어느 한 동무를 친혈육의 정으로 위해주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었다.

낯에는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오는 일터에서 헌신하고 밤이면 밤대로 선동자료를 준비하느라 피곤이 겹쌓이고 눈코뜰새없이 바빴다. 하지만 자기가 써붙인 전투소보들과 구호가 나붙은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계획수행의 자랑찬 소식이 전해질 때면 그는 선동원의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군 하였다.

로농통신원이기도 한 리영숙동무는 일이 바쁜 속에서도 많은 기사를 써냈다. 자기가 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독보할 때 작업반원들이 좋아하는것을 보는 순간의 기쁨은 또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단발머리처녀시절에 선동원사업을 시작한 리영숙동무는 50고개를 넘어선 지금도 당조직에서 첫 임무를 받던 때의 열정과 헌신으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랍치만행을 폭로규탄하는 국내외기자회견 진행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랍치만행을 폭로규탄하는 국내외기자회견이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기자회견에는 괴뢰패당의 유인랍치행위의 마수에서 빠져나온 녀성종업원들과 남조선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가족들, 우리 나라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남조선괴뢰패당의 집단유인랍치만행의 목격자들이 발언하였다.

최례영:우리 동무들을 백주에 집단적으로 유괴하여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으로 끌어간 괴뢰패당의 야수같은 만행에 치가 떨려 도저히 참을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철두철미 남조선괴뢰패당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감행한 조직적인 유인랍치행위이다.

괴뢰국정원놈들은 우리 동무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기 위해 먼저 식당책임자부터 매수하였다.

같이 일하는 과정에 알게 되였지만 식당책임자는 품욕이 강하고 녀성들과 치근거리기 좋아했으며 거간군들과 밀껴다니면서 술한 빚을 지고있는 놈이였다.

놈들은 이자의 이런 약점을 포착하고 그를 매수하는것으로부터 집단유인랍치계획을 실행하는데 달라붙었다.

장수련:그렇다. 지난 3월 중순 놈들의 사촉을 받은 책임자놈은 우리들에게 상부의 지시로 인차 다른 나라에 식당을 새로 전개하기때문에 임의의 순간에 옮길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전에 중국 연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 절강성 녕파로 옮겨왔기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놈의 말을 곧이 믿었다.

최례영:괴뢰패당의 랍치만행이 감행된 날은 4월 5일이다.

이날 점심시간이 되였을 때 웬 사람들이 식당뒤문쪽에 뻐스를 끌고와 새로 운영하게 될 식당으로 이동봉사를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동무들을 태우는것이였다.

그때 나는 정말 우연히 식당책임자놈이 뻐스를 타고온 사람들중의 한명에게 다가가 《국정원팀장》이라고 부르면서 굽신거리는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였다.

나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아직 뻐스에 오르지 못했던 동무들에게 빨리 몸을 피하라고 하였다.

신성아:정말이지 그때는 잘 피를 잡을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례영동무가 시키는대로 급히 앞문쪽으로 빠져 식당을 벗어났다.

잠시후에야 우리가 없어졌다는것을 알게 된 놈들은 뻐스에 탄 동무들을 데리고 황급히 달아났다.

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먼저 뻐스에 오른 동무들이 아마 뻐스밖에서 책임자놈이 《국정원팀장》이라고 하면서 쑥덕거리는 말을 들었더라면 다 떠여내였을것이다.

후에 알고보니 사전에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놈들은 이미전에 우리의 려권을 모두 걷어가지고 출국수속도 미리 해놓고있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미리 준비해놓았던 괴뢰려권으로 직접 우리 동무들의 출국수속을 한 다음 남조선으로 가는 비행기에 태워 서울로 끌고갔다고 한다.

리소현:우리 동무들은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에 올라서야 자기들이 남조선으로 가게 되였다는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들이 내리겠다고 야단치며 항의하자 괴뢰국정원놈들과 책임자놈은 《알지 못하면 가만있으라.》,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조선에 가게 된다.》고 하면서 또다시 회유기만하였다고 한다.

최례영:이번 집단유인랍치작전을 지휘한 놈은 우리가 연길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단골손님》으로 자주 출입하던 《국정원팀장》놈이였다.

그때 책임자는 우리들에게 그 놈을 자기가 피복무역을 할 때 알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고보면 괴뢰국정원놈들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유괴하기 위한 작전을 꾸미고있었던것이다.

한윤희:우리가 녕파에 옮겨온 다음에도 그놈은 우리 식당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우리 식당에는 중국사람들뿐 아니라 남조선사람들도 많이 오군 하였다. 우리는 비록 사상과 제도는 다르지만 같은 동포이기때문에 그들을 친절히 대해주었다.

그러나 더럽고 비렬한 놈들은 신분을 속이고 우리의 동포애와 진정을 우롱하면서 우리 동무들을 남조선으로 끌고가는 악귀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정말 치가 떨리고 분하기 그지없다.

순진하고 무고한 우리 동무들을 속여 집단적으로 유괴랍치한 괴뢰패당과 같은 야만들이 세상에 또 어데 있겠는가.

리미송:우리는 중국에 있을 때 괴뢰패당에게 유인랍치되여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말 각성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해왔지만 우리들자신이 유인랍치의 피해자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번에 놈들은 우리 동무들을 유괴하기 위해 백주에 인륜도덕을 무참히 짓밟고 국제법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고 무지막지한 국제깡패들이다.

이어 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민주조선사 기자:남조선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외교부와 《국정원》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지금 저들의 무대형범죄를 시인하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진대 도리여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탈북》이니, 《자진귀순》이니 하는 궤변으로 합리화하고있다. 이에 대한 종업원들과 피해자가족들의 심정을 듣고싶다.

최례영:가장 야만적이고 비렬한 방법으로 우리 동무들을 집단유인랍치한 괴뢰패당의 만행은 절대로 가리울수도 숨길수도 없다.

괴뢰패당이 떠드는 《집단탈북》이니, 《자유의사》니 하는것은 완전한 날조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동무들은 떠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괴뢰국정원놈들이 극비밀리에 준비해왔기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다른 나라에 식당을 전개하기 위해 가는줄로만 알았지 저주로운 남조선으로 끌려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우기 우리 동무들은 하나와 같이 부모형제들과 조국을 사랑하는 동무들이다.

그런 동무들이 무엇때문에 사랑하는 조국과 부모형제들을 버릴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리미송:정말 그렇다. 나와 제일 친했던 전옥향동무만 보더라도 정말 부모님들을 극진히 사랑한 동무였다. 그리고 동무들과는 얼마나 우정이 두터웠는지 모른다.

옥향동무에게 동창생들로부터 편지가 많이 왔는데 우리앞에서 다 읽어주군 하였다.

동무들의 편지를 계속 보고 또 봐서 보풀이 일어 거기에 불임띠까지 붙여가지고 다녔다.

옥향동무는 조국에 돌아가면 동무들과 얼싸안고 그동안 그립고그리웠던 심정을 터치겠다고 늘 말하군 하였다.

이런 동무가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친한 동무들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간단 말인가.

신성아:나와 한숙소에서 생활하던 류송영동무는 자기 동생을 끔찍이 고와했다.

동생이 자기보다 9살 아래였는데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을 도와 자기가 동생을 락아소매부터 돌봐주고 데리고다녀서 동생이 언니인 자기를 무척 따랐다고 했다.

그처럼 가족과 동생을 사랑하던 동무가 어떻게 그 소중한 모든것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갈수 있단 말인가.

사랑과 정이 오가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갈라놓은 박근혜쌍년과 괴뢰국정원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깡패들이다.

김윤희:그런 동무들을 두고 《귀순》이니 뭐니 하는 개소리를 제치고있으니 정말 분통이 터진다.

지금 우리 동무들이 괴뢰패당의 악랄한 《귀순》강요책동에 단호히 맞서 조국으로 당장 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단식도 하고 어떤 동무들은 실신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정말 괴뢰패당들을 갈갈찢고싶은 심정이다.

도대체 남조선이 어떤 곳인가. 남조선은 지옥이다.

《세월》호참사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생죽음을 당했는가.

짐푸른 바다속에 잠기는 배안에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손톱이 빠지고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선실의 벽을 긁고 창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구경만 한 야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울분을 참을수 없어 진상을 해명해달라는 부모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쏴대는 악의 땅이 바로 남조선이라는것을 우리모두는 잘 알고있다.

그런 저주로운 땅에 정신이 바로 배긴 사람이라면 누가 찾아간단 말인가.

리지예의 어머니:지금 박근혜악마년은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집단적으로 유괴랍치하여 저주로운 남조선땅으로 끌어가고는 그애들이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을 《동경》하여 《집단탈북》을 하였다고 떠드는데 그렇다면 왜 가족상면을 하자는 우리들의 요구를 한사코 가로막고있는가.

우리 딸은 학교때부터 전파목 최우등생이였고 표창장도 몇번이나 받았는지 모른다.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도 참가하였다.

정말 로동자의 자식을 돈 한푼 안받고 공부시켜주고 재능의 꽃을 활짝 피워준 진정한 어머니는 바로 우리 당이다.

나는 지난해 딸에게 보낸 편지에 항상 고마운 당의 품과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형제들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조국찬가》를 적어보내주었다.

지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와 아직 한번도 본적 없는 귀여운 조카애를 그린다고 하면서 나서자란 고향과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당의 품을 항상 잊지 않고 일을 더 잘하겠다고 편지때마다 쓰군 하였다.

정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품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만을 알고 자란 우리 애가,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크고 따사로운가를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애가 어떻게 우리 당의 품, 조국의 품을 떠나갈수 있단 말인가.

놈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위대한 일심단결에 먹칠을 해보려고 이번에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비렬한 집단유인랍치행위까지 벌리였지만 그따위 깡패행위로 우리와 맞서보려는 괴뢰패당이 어리석고 가련하기 그지없다.

우리 딸을 남조선으로 끌어간 괴뢰패당이야말로 천벌맞을 악마들이다.

전옥향의 어머니:집안의 외동딸로 자란 옥향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애였고 더우기는 동무들과의 우정이 남달리 두터운 애였다.

얼마전에 보내온 편지에서도 딸애는 이제 몇달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품으로 오게 된다고 그리도 기뻐하면서 조국에 돌아와 사랑하는 학급동무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그동안의 회포를 마음껏 나누겠다고 썼다.

그리도 부모에 대한 정이 깊고 자기 동무들에 대한 사랑이 컸던 애를 살붙이 하나 없는 저주로운 남쪽땅의 독감방에 가두어넣고 《귀순》을 강요하고있으니 박근혜, 이 악귀같은 쌍년아, 너도 인간이냐, 너도 그애녀자라고 머리를 들고 이 땅을 밟고다니느냐, 네년을 칼탕을 쳐서 죽여도 이 원한이 풀릴것 같지 않다.

박옥별의 어머니:우리 옥별이도 억만금을 준대도 절대로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을 《동경》해서 조국을 배반할 애가 아니다.

나는 괴뢰패당에게, 박근혜년에게 묻고싶다.

우리 자식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갔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을 독감방에 감금하고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박근혜년은 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의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부모들이 서울에 가게 해달라는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정말 억이 막혀 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것만 같다.

리범의 어머니:공화국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면서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한 놈이가 사람 못살 저주로운 남조선을 《동경》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비렬한짓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는 괴뢰패당이야말로 어리석은 놈들이다.

한행복의 어머니:우리 행복이는 편지때마다 어머니가 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제일가는 어머니라는것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면서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를 더 잘 모시렵니다.

어머니 다시한번 불러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딸애의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것만 같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 딸이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박근혜 개쌍년아, 네년을 땅크의 무한궤도로 천백번 짓이겨 짐푸른 바다속에 처넣어도 내 가슴에 뻗친 원한을 조금도 풀수 없다.

평양신문사 기자:지금 여론들은 괴뢰패당이 정보원깡패들을 내몰아 감행한 우리 공민들에 대한 집단유인랍치만행이 남조선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의 참패를 모면해보려고 조작한 사건이라고 평하고있는데 피해자가족들의 생각을 듣고싶다.

서경아의 아버지:남조선괴뢰들이 《대통령》선거니, 《국회》의원선거니 하는 놀음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와 결부된 그 무슨 사건들을 터뜨리군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인민모두가 다 알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는 박근혜패당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집단탈북사건》을 조작하여 마치 제놈들의 제재압박책동이 그 무슨 《효과》라도 있는듯이 거짓여론을 퍼뜨리고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반인민적악정과 《유신》파쑈독재부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을 일삼아온 괴뢰들의 추악한 행적과 만고죄악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남조선언론들도 이번 유인랍치행위를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주도》한것이며 《수법이 너무 유치한 특대형사건》이라고 한결같이 규탄하고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끌어다놓고 요란하게 떠들던 놈들이 이제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있는것은 놈들의 비렬한 랍치만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으며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갖은 위협과 박해를 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줄뿐이다.

괴뢰패당이 우리 자식들에 대한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범죄에 대해 《집단탈북》이니, 《자진귀순》이니 뭐니 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흉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총련 조선신보사 기자:지금 괴뢰패당은 남조선으로 랍치되여간 우리 처녀들의 부모들이 《고위층》간부들이고 그 무슨 《특별대우》를 받는 계층의 자식들이라고 떠들고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설경의 아버지:나는 천자공업성 전자기구판리국에서 일하고있다. 그래 내가 괴뢰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고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직위 그자체는 사업의 분담관계를 표시한다. 《고위층》이니 뭐니 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우리 자식들을 집단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간것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허튼 개나발질을 하는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얼마나 동족대결파 모략에 환장이 되였으면 순간에 드러날 거짓말까지 꺼리낌없이 하겠는가.

서경아의 아버지:나도 룡라도대외일군기술자양성소 로동자로 일하고있다. 괴뢰패당의 나발질은 짐은것을 희다고 우기는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생억지이며 황당한 궤변이다. 정말 박근혜패당은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인간오작품들이다.

전옥향의 아버지:나도 차수리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고있다. 개주둥이에서 개소리밖에 나올것이 없다고 동족대결에 미친 정신병자들의 입에서 온전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기자:정말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만들이고 극악한 범죄집단이다. 여러분들이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공민들 그리고 괴뢰당국에 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

최례영:우리는 괴뢰패당에게 유인랍치되여 강제로 남조선으로 끌려간 동무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끝까지 그들을 기다릴것이다.

동무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한윤희:동무들! 정말 보고싶다.

우리는 동무들이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을 잊지 않고 악귀같은 놈들과 끝까지 싸워 기어이 돌아오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신성아: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고 같이 일하고 한자리에서 같이 자며 꿈을 속삭이던 귀중한 내 동무들을 빼앗은 악마 박근혜년과 그 패당을 끝없이 저주하고 증오한다.

박근혜패당은 사랑하는 우리 동무들을 부당하게 억류하고 계속 회유기만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가족들도 한결같이 박근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치마두른 악귀이라고 규탄하면서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간의 피라고는 코끝만큼도 없는 박근혜년과 그 패당을 정말 찢어죽이고 칼탕을 쳐죽이고 불태워죽여도 이 가슴의 원한이 풀릴것 같지 않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아이도 낳아보지 못하고 늙어빠질 때까지 권력과 패륜패덕에 미쳐돌아가는 박근혜년이 인간의 정을 알리 만무하다고 하면서 백주에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자식들을 랍치한 불법무법의 깡패들이 《국제판례》를 떠들고있는것을 보면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고 개탄하였다.

괴뢰패당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사를 듣게 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박근혜패당은 우리 부모들앞에, 전체 조선민족앞에, 세계량심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할뿐아니라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며 그놈들을 한놈도 빠짐없이 오라를 지워 우리의 법정에 넘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비렬하고 치졸한 집단랍치극으로 조선로동당의 무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감히 허물어보려고 날뛰는 그런 서툰짜리 대결모략광대극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박근혜패당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만날수 있게 당장 실무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랑하는 딸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따쓰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청와대마녀가 빚어낸 범죄의 란무장

박근혜가 집권후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죄악가운데는 온 남조선을 각종 범죄가판을 치고 패륜패덕이 범람하는 말세기적인 사회로 더욱 전락시킨 용납 못할 죄행도 있다. 그 무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제법 큰소리를 치며 청와대안방에 틀고앉은 역도가 지금껏 한것이란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땅을 그야말로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는 몸서리치는 범죄의 란무장, 인간생지옥으로 만든것뿐이다.

박근혜역도의 집권이후 남조선에서는 각종 범죄사건이 매일 6 000여건, 해마다 200여만건이나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이 범죄발생률에 있어서도 세계최악의 수준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사건을 비롯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살인사건들이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심이 조성되고있는 속에 자식이 돈때문에 자기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고통을 가하다가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

각종 폭력과 학대는 세계적인 범죄소굴 남조선에서 너무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언론들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행, 어린이학대, 로인학대 등에 관한 보도가 실리지 않는 날이 없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전체 녀성의 3분의 2이상이 항시적인 성폭행위협에 시달리고있다.

부부사이의 폭행건수는 지난해에 1만 2 591건에 달하였다. 남조선에서 부부사이의 폭행이 2년동안에 2배이상으로 늘어난것이다.

사회와 자식들의 보호를 받기는 고사하고 친대와 학대속에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로인들은 130여만명에 달한다.

괴뢰보건복지부가 《로인학대방지종합대책》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로인학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요란히 광고하였지만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아동학대현상은 극도에 이르렀다. 인천의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원이 4살 난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것과 같은 야만적인 아동학대사건들이 꼬리를 물고있다.

지난해 상반년에만도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5 000여명에 달하였다. 괴뢰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사건은 2010년에 비해 무려 27배로 증가하였다. 해마다 유괴, 랍치되여 종적없이 사라지는 어린이들은 수백명이나 된다고 한다.

썩어빠진 양키식생활양식과 말세기적인 생활풍조, 패륜패덕이 만연되고 극도의 향락주의에 물젖은 남조선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는 불보듯 말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무려 7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남조선이 세계 1위의 《자살왕국》으로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괴뢰패당이 《자살예방 5개년계획》이라는것을 고안해내고 《자살방지》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지만 병주고 약주는 식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광대극에 사람들은 오히려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그 무슨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절망시대를 몰아온 박근혜역도를 절규하며 분노의 함성을 터치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남조선을 최악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괴뢰역도에 대한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가 바로 얼마전에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에 그대로 비껴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땅을 사람 못살 인권의 불모지로 만든 주범이 다름아닌 박근혜역적임을 날날이 폭로해주고있다.

그러니 결론은 명백하지 않은가.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재난과 고통의 화근인 청와대마녀부터 때려잡아야 한다.

김 충 섭

불법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 박근혜는 민심을 받아들이라
남조선단체들 강력히 주장

남조선의 진보련대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수세력의 망동을 부추기는 괴뢰패당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어버이련합》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이 각계층 단체들의 반 《정부》투쟁을 방해한 죄행들을 폭로하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지난 2월 5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성원들이 당국의 반민중적악정을 반대하는 선전활동과 기자회견을 벌리자 《어버이련합》패거리들이 투쟁참가자들을 마구 폭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지난해 12월 28일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정대협의 투쟁현장에까지 몰려와 친 《정부》집회를 벌려놓고 단체핵심성원들을 《종북》으로 몰아대며 망동을 부렸다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자식들을 잃고 고통받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협담하며 《정부》정책선전에 열을 올린 보수패거리들의 죄행을 성토하였다.

또한 로동시장구조개악에 항의하는 민주로총의 투쟁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발간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시위와 방해책동도 집중적으로 벌어졌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어버이련합》이 정대협을 《종북》으로 몰아댄데 대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있다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정보원이 자료를, 전경련이 자금을 제공해주며 보수세력을 친 《정부》집회에 내몰았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일까지 트집잡아 수색, 체벌을 밥먹듯 하면 검찰, 경찰이 권력기관이 개입된 보수세력의 망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현 《정권》의 악정에 분노하는 민심을 외곡하는 《어버이련합》의 망동은 자연발생적인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시하고 재벌들이 자금을 대주고 정보원이 계획한데 따라 감행된 불법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청와대와 전경련, 정보원, 《어버이련합》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추악한 정체가 드러나자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일개 《행정판의 행위》로 묘사하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일관하였는가 하면 전경련은 관계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정보원은 전혀 모르는척 하고있다고 회견문은 까밝혔다.

회견문은 민중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가고있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 《정권》의 처사가 참으로 가관이라고 하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분출된 민심을 받아들이고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한숨소리 높아가는 청와대
남조선언론이 조소

남조선의 《뉴시스》가 4월 28일 《정부는 일손놓고… 한숨키가는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 박근혜괴뢰당이 최대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대하여 조소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청와대의 한숨소리가 커가고있다고 하면서 총선거에서의 참패로 여당은 지리멸렬상태인데다 야권은 《정부》의 중점정책에 반기를 들고나섰다고 밝혔다.

글은 4월 26일 박근혜가 언론계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개혁추진의 필요성을 운운하였는가 하면 력사교과서 《국정화》강행을 재확인하고 《세월》호특별법개정움직임을 반대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박근혜의 억지주장에 야당들이 맞대놓고 저부의사를 밝히며 당장 력사교과서 《국정화》폐기와 《세월》호특별법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이런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집안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을 뒤받침하기는커녕 제 발등에 불을 끄기에도 바쁘다.

박근혜가 간담회를 가지던 그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인물들이 총선참패의 책임을 두고 격론을 벌리며 《테탓》싸움에만 몰두했다.

4월 28일에는 친박계내부에서 원내대표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출마강행목소리가 부딪쳤다. 친박, 비박계파간 다툼을 넘어 이제는 같은 편끼리도 의견충돌을 빚고있는 형편이다.

《임기말증후군》이 때이르게 나타나는셈이다.

여소야대정국으로 가뜩이나 힘이 빠진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의 핵강국의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이 일단 막을 내렸다.

사상 최대, 사상 최악의 핵전쟁연습이 강행된 기간은 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핵범죄국 미국과 자주의 평화롭고 번영한 빛발을 세차게 발산하는 핵강국 선군조선사이의 핵대결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진 준엄한 나날이였다. 비록 불과 물, 핵과 핵이 대결하는 가렬처절한 교전단계에로까지 번져지지 않았지만 이번 결전은 사실상 전쟁과 다름바 없는것이였다.

남조선에서 벌어진 이번 핵전쟁연습은 작전내용의 성격과 목적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미제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전략적핵심지대들을 선제타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배짱이 감행하였다.

《참수작전》에 참가할 미군의 각종 특수작전부력들과 추종국가무력이 새까맣게 제바라들어와 짱박혀있던 《6대전략자산》에 속한다고 하는 《B-52》전략폭격기나, 핵동력잠수함 《노스 캐롤라이너》호나,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나 하는것들이 하늘과 바다를 메우며 쓸어들어와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렸다. 미제는 끌어들일수 있는것은 모두 끌어들였다.

지금까지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이 숱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해왔지만 이번처럼 《년례적》이니, 《망이적》이니 하는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극악무도한 범죄적기도와 침략자의 본골을 숨김없이 드러내놓으면서 발광한적은 없었다. 그로 하여 온 남녘땅이 화약내질은 전쟁터로, 핵전쟁살인장비의 전시장으로 변하였고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되였다.

웬만한 나라같으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가하는 무차별적인 온갖 위협공갈의 무시무시한 회오리돌풍에 휘말려들어 대결초기에 벌써 썩은 울바자처럼 쓰러졌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끄떡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백두의 칼바람정신, 강위력한 선군총대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호되게 탐새김으로써 극악한 원쑤들을 기절초풍, 혼비백산에 하였다.

올해의 첫 대결전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무적필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최후발악, 전대미문의 살기등등하는 침략전쟁광증을 통쾌하게 제압분쇄하고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보위하였다. 그와 함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혁명의 운명을 결사수호할 불굴의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핵전쟁위협을 막아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병진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왔기때문이다. 외신들이 이번 조미핵대결전을 지켜보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령으로 되였다고 주장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의 드세찬 반격에 한절만 얼혼이 나가 허둥지둥대던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은 세계면전에서 그래도 수치를 모면해보려고 《키 리졸브》와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마지막까지 강행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 이번의 무모한 범죄적망동에 대해 돌이켜보면서 뼈저리게 찾아야 할 심각한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은 첫째로,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범죄적망동은 곧 자기들의 최후멸망으로 이어진다는것이다.

이 세상 만물에 약동하는 생명력을 부어주는것은 저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태양이다.

우리 조국에 무강번영의 새로운 활력을 안겨줄뿐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위대한 태양은 바로 우리 천만군민이 해바라기처럼 열렬히 따르고 충정을 다 바쳐 모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그이는 곧 백두산대국의 최고존엄이시며 우리 삶과 운명의 전부이시다.

지난해 미제와 만고역적인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주권을 찬탈하려던 모든 시도가 풍지박산나게 되자 우리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천인공노할 범죄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서명하고 그것을 발표시켰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그 작전계획을 초벌 적용해본 원쑤들은 올해 봄철의 핵전쟁연습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못해 우리 운명의 전부를 빼앗고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미제의 잔악한 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을 과감히 단행하여 완전성공시켰다. 그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이 무분별하게 날뛰다가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라는 우리의 엄숙한 중대경고였다.

핵강국의 탄생을 알리는 첫 수소탄시험의 우렁찬 뢰성이 온 행성을 진감하자 그에 경악실색한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붕괴》타령을 공공연히 웨치면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핵전쟁연습을 극히 모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강행하였다.

원쑤들의 이러한 책동은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 조선반도는 물론 온 지구를 암흑세계에 몰아넣겠다는것과 같은것으로서 우리 천만군민에 대한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이였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보복열기는 하늘끝에 닿았다. 우리 혁명무력은 모든 장거리포들을 비롯한 위력한 타격수단들에 쌓이고쌓인 증오와 분노를 만장약하고 악의 소굴들을 깨끗이 박멸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였다.

만일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찍했다면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에 의해 청와대와 백악관은 벌써 생명체를 찾아볼수 없이 재가루만 풀풀 날리는 황량한 무덤으로 변하였을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미대결전은 그야말로 천만군민이 태양을 천겹만겹으로 옹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서 싸우는 수령결사옹위성전이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성전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이번 사태를 통해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눈부신 태양을 가리워보려는자들은 애초에 생존할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우리 천만군민의 증오심과 보복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있다. 이제라도 명령만 내린다면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이 감행해온 모든 범죄적망동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것인가를 느낄새도 없이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교훈은 둘째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키는것이 도리여 미국본토의 안전을 엄중한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는것이다.

미국이 2013년의 봄철에 핵전쟁연습을 강행하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다가 혼뜨검난적이 있다.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대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 등을 초토화하기 위한 우리 전략군의 화력타격계획이 최종비준되고 아군전략로케트들이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갔던것이다.

그때부터 오바마일당과 미국정보기관들이 계속 의문부호를 달고다닌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에서 판건이라고 할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와 대기권재돌입기술 등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기술들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극소수 나라들만 보유하고있으며 그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고있는것들이다.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케트의 핵심기술들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핵선제타격하겠다고 덤벼도 주체조선이 미국을 핵으로 무자비하게 보복타격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결국 이것은 미국의 생존, 안전과 관련되는 중대문제였다.

우리 나라를 상대로 야만적인 국제제재망을 펴놓고 눈에 피발이 서서 감시해온 오바마일당은 우리가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군사기술들을 절대로 보유할수 없다고 떠들어대군 하였다. 그러면서 올해에 우리에 대한 《족집게식타격》을 서슴없이 들이대려고 획책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그토록 무진 애를 쓰며 알고싶어하고 보고싶어하던 주체적인 핵탄두의 소형화기술, 대기권재돌입기술 등을 서슴없이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미국을 핵으로 초토화할수 있다고 한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속에서도 우리가 군사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하나로 련결시켜놓으면 조선이 미국본토를 핵으로 초토화할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핵강국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미제의 비대한 핵항공모함이나 핵동력잠수함, 사전장비적재함선전단 등이 투입된 적지역의 항구들을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로케트들로 무자비하게 타격하여 그 모든것들을 극히 짧은 시간에 거대한 파고철로 만들어놓을수 있다는것도 보여주었다. 또한 공중으로 날아드는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투기니 뭐니 하는것들도 파리잡듯 할수 있다는것도 다 보여주었다.

이에 전률한 미제는 핵전쟁도발의 단추를 감히 누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의 과시로 하여 궁지에 몰린것은 임기말기에 이른 오바마일당이다.

얼마전 미국의 잡지 《뉴스위크》, CNN방송 등은 오바마가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조선의 핵미싸일보유가 자기의 집권유산으로 기록되는것을 한사코 피해보려고 조선이 아직 핵탄두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떠들면서 계속 생억지를 부리고있지만 미국정보기관 관리들은 조선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가지고있다고 주장한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놀아대는 오바마를 조소하였다.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일삼은 대가로 미국은 본토의 안전을 더는 담보할수 없게 되였다.

미국의 핵만능론은 풍지박산되였다. 우리에 대한 극악무도한 핵위협공갈이 몰아온 필연적귀결이다.

앞으로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미국은 더더욱 무서운 핵악몽속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교훈은 셋째로, 야만적인 제재에 악질적으로 매여달리는것이 백두산대국을 세계에 불도 없는 최강국으로 전변시켜놓는다는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온 세상에 보여준 위력한 핵공격기술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잔인한 제재와 혹독한 핵위협공갈속에서 마련한 빛나는 성과들이다.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제재는 우리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의 한 상급연구사는 얼마전에 채택된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는 미국과 맞서 탄도미싸일기술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것이다, 조선은 이미 독자적으로 특수한 무기설계방법을 세우고 많은것이 부족되는 속에서도 세상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발전된 나라들보다 35~45년 뒤떨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조선의 미싸일기술은 오늘에 와서 그 정밀도가 더욱더 제고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원쑤도 일격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위력한 핵무기들로 무장한 주체의 핵강국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대조선위협공갈과 제재압박에 매여달릴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미, 반괴뢰계급의식의 칼날을 더욱 시슬루르게 벼리고있으며 자위적핵억제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자립, 자력, 자강으로 무강번영을 이룩하며 경제강국의 면모를 보란듯이 갖추어나가고있다.

세계적으로 경제강국의 징표를 국민총생산액으로 따지지만 우리는 그 징표를 경제의 자립, 자력, 자강의 높이로 보고있다.

그 어떤 타격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싸우는것이 진짜최강자이다.

아무리 국민총생산액이 높고 겉모습이 번쩍거려도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해일이 무섭게 들이닥치거나 미국이 자금줄을 끊어놓으면 모래성처럼 풀썩 무너지는 경제국, 발전과 문명을 자랑하다가도 위기에 빠지면 국제금융기구들에 다급하게 《조난신호》를 보내며 원조를 구걸하는 나라들을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자원,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에 얼마만큼 의거하고있는가 하는것이 경제강국을 가르는 기준이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강국은 지척에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것을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만들어내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는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나가고있다.

우리가 최근에 선포하고 착공식을 한 려명거리전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초강도정치적압박도 초강도핵위협공갈도 초강도경제제재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미국에는 최후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리든가 아니면 핵세례를 맞는가 두길중의 한길뿐이다.

미국은 평양이 위싱톤과의 대결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의 핵무기는 더욱더 위력해지고 조선의 지위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될것이라는 세계의 많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번 대결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의것이고 비참한 패배는 미국의것이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 내린 미국의 판단과 대책없는 망동짓이 낳은 후과이다.

미지배층이 올해 봄철의 핵전쟁연습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파산의 운명에 처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구원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종국적파멸을 안기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을 더욱 과감하게 벌려나갈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을 격동시키며 최강국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리 경 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에스빠냐정계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지도부인사들이 4월 25일 에스빠냐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그들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 미겔 안헬 발라론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탕전실령도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변함없이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더욱 존엄떨치리라고 믿는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에스빠냐인민공산당 국제관계비서 아스토 가르씨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지방당대표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세계에 유일무이한 진정한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들의 손길아래 승승장구해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적극 따라배우는것은 현 세계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 제7차대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사회주의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리정표로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힘과 강권정책을 철회할것을 미국에 요구

로씨야대통령 블라지미르 푸찐이 최근 텔레비죤 및 라지오방송에 출연하여 힘과 강권정책을 철회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만일 자기를 특수하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특수한 지위와 특권을 추구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문제의 근원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힘과 강권, 제국주의적오만성을 버리고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로씨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적인 국제관계수립은 불가능하다고 언명하였다.

청년들을 혁명적이고 결단성있는 존재로 키울데 대해 강조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최근 이슬람교대학생협회 성원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인터네트를 통하여 청년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적들의 정보전쟁에 대처하여 그들을 혁명적이고 결단성있는 존재로 키울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이란청년들의 혁명적의지를 변질시켜 그들을 열정과 희망, 락관도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을 혁명적이며 결단성있고 락관성과 헌명성, 용감성과 헌신성의 체현자로 키워 적들의 정보전책동에 철저히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항법위성 발사

인디아가 4월 28일 《IRNSS-1G》로 명명된 일곱번째 항법위성을 성과적으로 쏴올렸다.

무게가 1 425kg인 이 위성은 국산제극궤도위성발사체 《PSLV-C33》에 실려 발사되였다고 한다.

국방력강화노력

벨라루씨가 최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 국방상은 앞으로 5년동안에 500대이상의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하는 한편 700대의 군사기술기재들을 현대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적인 무인기를 배비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파키스탄해군이 4월 9일 반함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자르브》반함미싸일은 아라비아해에 있는 해상목표를 명중하였다고 한다.

수출 증대

이란에서 매일 200만bbl이상의 원유를 수출하고있다.

이 나라 원유상은 3월부터 하루원유수출량이 25만bbl 더 증가되였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2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7% 증대되였다. 얼마전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나라들사이의 협조

알제리와 아랍추장국련방이 4월 26일 군사, 에네르기리용분야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근 꾸바와 쿠웨이트는 수력발전소건설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에찌오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4월 8일 두 나라를 련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교육,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잠비아와 레소토는 교육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경제 장성

수단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장성률이 그 전해의 3.5%로부터 5.3%로 증대되였다. 4월 18일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올해 1.4분기에 경제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대되였다. 특히 이 기간 제조업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한다. 최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방글라데슈자티야당 력사적인 평양선언에 서명

방글라데슈자티야당이 4월 21일 력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하였다.

당총비서 모스타파 자말하이더는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선언에 서명하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 당은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부패한 선거제도에 대한 분노의 폭발

미국전역에서 항의시위와 집회

대통령선거전이 한창 벌어지고있는 미국에서 부패한 금전선거제도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기운이 고조를 이루고있다.

워싱톤을 비롯한 30여개 도시들에서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금전선거가 판을 치는 선거제도를 반대하여 떨쳐나섰다.

얼마전 미국의 《민주주의의 봄》단체 성원들은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로부터 워싱톤까지 240km를 도보로 행진하면서 항의행동을 벌렸다.

4월 11일과 15일 워싱톤의 국회의사당앞에서 수많은 군중이 통성과 시위를 벌렸다.

항의행동참가자들은 《1인 1표의 가치를 존수하라!》,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사려고 하지 말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것을 미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정치가들의 뭉치돈을 쓸어버리라!》 등의 글들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대통령후보로 나선자들이 막대한 돈을 탕진하는데 대해 신랄히 규탄하였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4월 27일 이스라엘군은 꾸드스교외에 있는 한 초소에서 2명의 팔레스티나청년들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이러한 살인만행은 현지주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4월 20일 팔레스티나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꾸드스에서 33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주민들을 체포해갔으며 그들의 살림집들을 강제로 허물어버렸다고 한다.

4월 25일 이스라엘군은 동부꾸드스에서 부당한 구실을 대고 3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청년들을 체포해갔다.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12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체포해갔으며 여러채의 팔레스티나인 살림집들을 강제로 허물어버렸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군의 장기주둔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정세가 의연 첨예하다.

이 나라 정부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력권확장을 위한 여러 분파들사이의 싸움이 확대되여 나라의 안보상황이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수도 카불에 자리잡고있는 외교대표부구역에 대한 로케트탄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발생후 탈리반은 로케트탄공격이 미국무장관 케리를 목표로 한 저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4월 9일 미국무장관 케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불의에 날아들었다. 그는 이 나라 고위인물들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탈리반호전분자들 그리고 〈이슬람교국가〉 테로분자들과 싸우고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계속 도울것》이라느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란군과 싸우고있는 아프가니스탄안전군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조언을 주며 방조할것이라는 미국의 전적인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낯간지럽게 놀아댔다. 그리고는 그날 밤으로 도적고양이같이 이 나라를 빠져나왔다.

바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로케트탄공격사건이 일어났다. 케리는 요행 목숨을 부지하였다. 그 일은 그렇다치고 문제는 케리의 발언내용이다.

말속에 말이 있다고 이번에 케리가 남기고간 말을 쥐여짜면 미국이 없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은 보장될수 없으며 따라서 항시적인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이것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한다는 소리나 같다.

원래 미군은 올해중에 이 나라에서 전부 철수하게 되여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지난시기 여러차례나 2016년말까지 미군을 완전철수시키겠다고 한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미군철수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력을 철수시키겠다고 한것이 여론기만이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영구강점하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은 2001년 9.11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보복》을 운운하며 《만데로전》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사실을 기억하고있다. 당시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표적으로 삼은 탈리반정권을 순간에 붕괴시키고 《만데로전》의 범위를 주변나라들에로 확대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틀어쥐면 까스삐해지역의 원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눈독을 들이면서 타고앉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 여기에 구실을 달아준것이 바로 9.11사건이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 중동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놓았다. 미제5함대가 페르샤만해역에 배비되여있으며 이란의 서쪽에 있는 이라크, 서북쪽에 있는 뛰르끼예, 남쪽에 있는 바레인과 까타르, 동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주둔시켰다. 지금에 와서 미국이 이 모든것을 포기할리 만무하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명백하다.

중동지역의 원유통제권을 장악하자는것이다.

미국은 그 실현을 위한 사전준비로 아프가니스탄에 불화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그 결과를이 미국의 비호를 받는 정부군과 탈리반세력사이, 정치세력들사이의 군사적충돌과 마찰이다.

최근 탈리반은 《오마리작전》으로 명명된 봄철대공세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한편 탈리반의 공격이 강화되는것을 계기로 미국은 정부군을 탈리반과의 대결에로 내몰고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세력들은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하루빨리 가니대통령과 아브둘라호행정장관이 9월까지 정부의 장래를 결정할 대민족회의를 소집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아쉬라프 가니로 말하면 지난 2014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당시 대통령선거에서는 50%이상의 지지표를 받은 당선자가 없는것으로 하여 그중 많은 지지표를 얻은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였다. 아브둘라호 이전 외무상과 아쉬라프 가니 이전 재정상이 서로 경쟁하였다.

결과 아프가니스탄선거위원회는 대통령결선투표집계결과 아쉬라프 가니후보가 56.44%의 득표률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브둘라호는 선거위원회에 부정의혹이 제기된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였다. 이들은 제각기 선거전에서 자기가 승리하였다고 주장해나섰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해나섰다. 미국은 선거에서의 부정의혹이 제기된것만큼 선거위원회의 발표는 잠정적일뿐 최종결과는 아니라고 제멋대로 결론하고 이해타저해라 혼시하면서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아쉬라프 가니를 대통령으로, 아브둘라호는 수상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행정장관직에 임명하기로 한 통합정부구성안이 제기되여 그것이 최종안으로 락착되였다. 대통령과 행정장관을 통합정부라는데 집어넣고 막후조종하면서도 두 인물이 서로 물고뜯으며 다투도록 하자는것이 미국의 검은 속심이였다.

실지 미탐국자들은 《중재자》의 명색으로 아무때나 이 나라에 드나들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치를 좌우지할수 있게 되였다고 패재를 올리고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불의에 나타난 케리의 행동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책동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더욱 격화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저들의 범죄적리익을 위한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은 이렇게 검질기고 교활하다.

사실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에 최대로 각성을 높이고 그 어떤 사소한 기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여러 나라들에서 각종 사고

◇ 일본 고베시에서 4월 22일 건설중에 있던 다리기둥이 무너져 10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17일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 베가스에서 뻐스와 화물자동차가 충돌하여 2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도로가 일시 차단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 인디아의 동부지역에서 4월 17일 달리던 뻐스가 방향을 잃고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27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우따르 쁘라데쉬주에서 건설중에 있던 지하철도의 기둥이 무너져 8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에 앞서 16일 에찌오의 아스한에서 렬차와 화물자동차가 충돌하여 16명의 사상자가 났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동부지역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에서는 이날 화재가 일어나 12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072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